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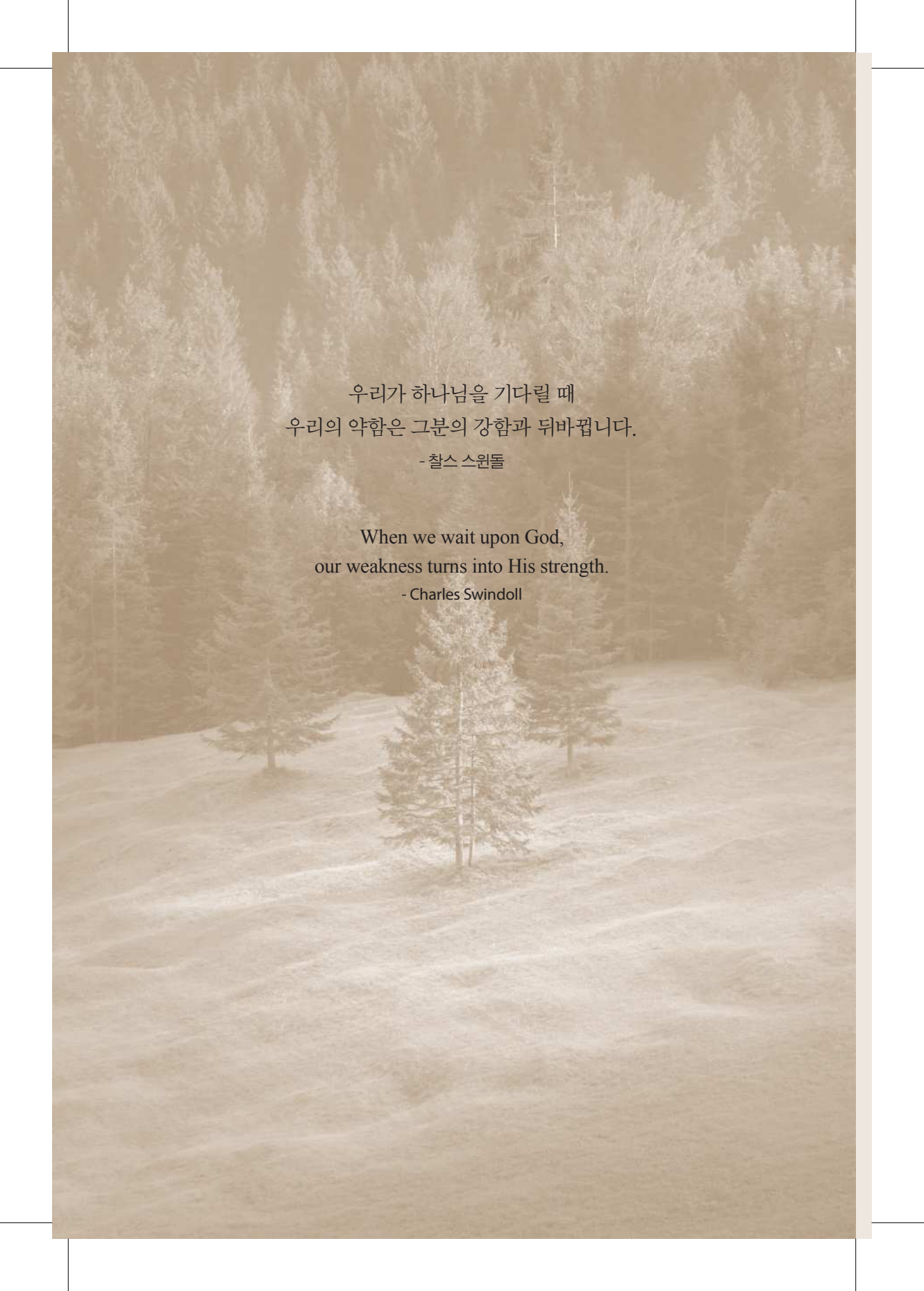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XNNA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약함은 그분의 강함과 뒤바뀝니다.

- 찰스 스윈돌

When we wait upon God,  
our weakness turns into His strength.

- Charles Swindoll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May 2021, 5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로렌스 형제-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é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는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 편지들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 희망합니다.

## 첫 번째 편지

FIRST LETTER

###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평소 습관으로 삼아 훈련하세요

당신이 이렇게나 진지하게 바라는 걸 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GOD's Presence)를 습관적으로 의식(habitual sense)하게 되었는지 그 방법(method)을 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비(His mercy)로운 주께서 내게 친히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임재 말입니다. 당신의 끈덕진 요구를 이겨내기란 참 힘든 일이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에게도 내 편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일 이 편지를 드러낸다고 하면, 당신의 진일보(advancement)를 위해 내가 품은 모든 바람 때문에서라도 이런 결정은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방법(methods)이라든가 다양한 영적 삶(spiritual life)의 실천(practices)을 많은 책에서 발견해 왔지만, 내 생각엔 이들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기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것(wholly GOD's)'이 되느냐였지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할 수 있는 한 내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가 아닌 모든 것은 버렸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

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주님 앞에서 나는, 때때로 그의 발아래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범죄자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속 그분을 나의 아버지(my FATHER)요, 나의 하나님(my GOD)으로 여기며 바라보았어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분께 예배(worship) 드렸어요. 그의 거룩한 임재(His holy Presence)를 내 마음속에 붙든 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생각해내면서 말이죠.

이 훈련(exercise)을 하면서 적잖은 고통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involarily) 정신이 산만해진다 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애태우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아랑곳없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 때(the appointed times of prayer) 뿐 아니라 온종일 이 훈련을 내 본업(business)으로 삼았지요. 때를 가리지 않고(at all times), 매 시간(every hour), 매 분(every minute), 심지어 업무가 가장 바쁜 때(in the height of my business)조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내 머릿속에서 내몰았어요.

이 같은 일은 수도원에 들어온 이래 나의 일상 습관(common practice)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매우 불충분하게(imperfectly) 행해 왔지만, 나는 이 일이 갖는 큰 이점들(great advantages)을 깨달았답니다. 그것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mercy)와 선함(goodness) 덕택임을 나는 잘 알고 있지요. 그분이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여전히 나는 누구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스스로를 그의 거룩한 임재(His holy Presence) 앞에 두려 할 때, 그리고 그분을 항상 우리보다 앞세울 때,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는 일, 최소한 의도적으로 그분을 불쾌하게(displeas) 만들 수 있는 행동을 막아준은 물론, 우리 안에 거룩한 자유(holy freedom)가 생기게 하지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친밀함(a familiarity with GOD)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총(graces)을 용케 청하기도(ask) 합니다.

결국 이 행동들을 자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는 마치 본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의 위대한 선하심(great goodness)은 어떤 찬미로도(admire) 충분치 않습니다. 덧붙여 나 같은 불쌍한(miserable) 죄인에게 베풀어주신 은혜(favours)를 생각하며 부디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기를, 아멘.

## 두 번째 편지

SECOND LETTER

###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 모든 일의 동기입니다

얼마 전 믿음이 깊은 한 사람(a person of piety)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그는 영적인 삶(spiritual life)이란 은혜의 삶(life of grace)이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은혜는 노예다운 두려움(servile fear)에서 시작되고, 영생을 소망(hope of eternal life)하며 커지다가, 순수한 사랑(pure love)으로 완성되는데, 각각의 단계에는 또 다른 단계들이 있고, 이것을 밟으면서 사람은 마침내 축복된 완전한 경지(blessed consummation)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방법들을 따르진 않았습니니다. 도리어 무슨 천성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나를 낙담에 빠뜨린다는 걸 깨달았지요. 이것이 내가 수도원에 들어오게 된 이유였답니니다. 나는 내 죄를 속죄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의(resolution)를 다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것들일랑 모두 버리기로(renounce) 했지요.

처음 몇 년 간 나는, 보통 경건을 위해 따로 정해진 시간에 죽음(death), 심판(judgement), 지옥(hell), 천국(heaven)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생각 등에 파묻혀 있었답니니다. 그다음 몇 해는 하루 중 남은 시간이나, 심지어 일이 한창 바쁜 중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종종 내 안에 계시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속해서 정성껏 내 마음을 쏟아 넣었습니다.

마침내는 나도 모르는 새 정해진 기도시간에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었고, 이

것은 내게 큰 기쁨과 위로(great delight and consolation)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연습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존경(esteem)을 낳았으며, 따라서 오직 믿음만(faith alone)이 이런 면에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었지요.

내 시작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처음 10년간은 무척 힘들었음을 고백해야겠군요. 내가 원한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다는 불안감(apprehension),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내 지난 죄들, 또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게 베풀어주신 그 큰 은혜, 이것들이 내 괴로움의 주제며 근원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자주 넘어지고 곧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피조물(creatures), 이성(reason), 그리고 하나님(GOD Himself)까지 내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오직 내게 남은 건 믿음뿐이었지요. 내가 그런 은혜(favours)를 받았다고 믿는 것이 실은, 다른 이들이 어렵게 도달한 곳에 감히 한번에 당도한 척하는 내 뻔뻔스러움의 산물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때로 괴로웠습니다. 어느 때는 제멋대로의 망상(wilful delusion) 때문에, 또 어느 때는 내게 구원(salvation)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워했지요.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닌가(그렇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내 고민은 오직 나의 믿음을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하는 중에, 나는 갑자기 자신이 달라진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괴로운 가운데 있던 내 영혼(my soul)이 깊은 내면의 평화(a profound inward peace)를 느끼고 있었지요. 마치 영혼이 그 평화의 중심, 안식처(place of rest)에 있는 듯 말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 희망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표현하기란 쉽지가 않네요. 고통(pain)도 어려움(difficulty)도 없는 상태이지요. 모든 것에서 내가 이루려 노력



하는 하나님의 뜻 말고는 다른 뜻(will)이 없으니까요. 나는 전부 다 내려놓았기에 그분의 명령이 아니라면 땅에서 지푸라기를 집어 올리는 일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다름 아닌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일의 동기(motive)이지요.

나는 의무로 정해진 것 말고는 어떤 유형의 경건(all forms of devotion)도 기도(set prayers)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in His holy presence) 계속 머무는 것을 내 본업(my business)으로 삼았지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께 보통의 상냥한 안부를 전하며 그 임재 안에 자신을 유지시키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실재적인 하나님의 임재(actual presence of GOD)'라고 부르려 합니다. 아니, 더 나은 표현을 찾자면, 하나님과 영혼의 습관적이고 고요하며 은밀한 대화라고 할 텐데, 이것은 종종 내게 내적인 기쁨(joys)과 환희(raptures)를 일으키지요. 때로는 외적으로도 나타나는데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절할(moderate) 수단을 찾아야 될 정도랍니다.

확신하던데, 지난 30여 년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에겐 따분할지 모른 많은 얘기들은 건너뛰겠습니다. 대신 내가 왕(my King)으로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자(the most wretched of men)로 간주합니다. 상처와 부패(sores and corruption)로 가득하고 왕 앞에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요. 깊은 뉘우침으로 마음이 움직인 나는, 그분께 나의 악함(wickedness)을 고백(confess)하고 용서(forgiveness)를 구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나를 처리하도록 그분 손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선함(mercy and goodness)으로 가득한 이 왕은 나를 벌하는 것(chastising)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그의 상에서 나를 먹이고, 자기 손으로 직접 시중을 들며, 그의 보물 상자 열쇠까지 내게 건넵니다. 그는 천 가지 만 가지 방법으로 끝없이(incessantly) 나와 이야기 나누길 즐기시

고, 내가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양 모든 면에서 존중하여 대우해 주지요. 그러므로 이따금 나는 자신이 그의 거룩한 존재 안(in His holy presence)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단순한 집중(simple attention), 그리고 일반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가슴속에 있는 아이보다 더 큰 달콤함과 기쁨으로 자주 그분께 달라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감히 이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면, 나는 이 상태를 하나님의 가슴(bosom of God)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루 말하기 어려운 달콤함을 거기서 맛보고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부족하거나 나약해서 때로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헤매면, 너무도 매혹적이고 달콤하여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내적 충동(inward motions)으로 인해 곧 정신이 든답니다.

당신도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나란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처럼 하찮고(unworthy) 배은망덕한(ungrateful)이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큰 은혜(great favours)가 더 잘 나타나겠지요.

내 정해진 기도 시간엔 항상 동일한 연습(exercise)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 나 자신을 조각가(carver)앞에 서 있는 돌덩이(stone)로 여겼답니다. 그는 그것을 깎아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그분이 내 영혼(my soul)에 그의 완전한 형상(His perfect image)을 만드시고, 온전히 그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에 몰두할 때, 내 모든 정신(my spirit)과 영혼(my soul)이 아무런 수고(care)나 노력(effort) 없이 드높여지는 걸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그 중심(centre)이요 안식처(place of rest)이신 하나님 안에 매달려 굳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된답니다.

이 상태를 들어 누군가는 비활동(inactivity)이니, 망상(delusion)이니, 자기애(self-love)라고 설명하지만, 만일 그 상태의 영혼이 능히 그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거룩한 비활성(holy inactivity)이며, 행복한 자기애(happy self-love)일 거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상 정신이 이런 휴식(repose)가운데 있을 때

면 이전에 익숙하던 행동들에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전에는 도움 (support)이 되었다 해도 이제는 오히려 훼방(hinder)을 놓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망상(delusion)으로 불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을 즐거워하는 영혼은 이 상태에서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망상이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remedy) 문제입니다. 그 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소망하고 완전히 그분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기꺼이 내게 당신의 의견을 보내주신다면, 당신의 경건함(rever-  
ence)을 높이 평가하는 나로서는 언제나 그렇듯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우리주님 안에서 당신의 벗 된 자*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①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 01

January 금 Fri

###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①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1-2장

②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④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70

내지생들

⑤ **묵상가**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삶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2장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한다.

② **잠언 2:1-12**

- ⑥ 내 아들이야 내가 만일 너의 말을 받으며 너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온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니라  
9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꿈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 Proverbs 2:1-12

<sup>1</sup>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sup>2</sup>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sup>3</sup>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sup>4</sup>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sup>5</sup>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sup>6</sup>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sup>7</sup>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sup>8</sup>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his saints.

<sup>9</sup> 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equity, every good path.

<sup>10</sup>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sup>11</sup>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you,

<sup>12</sup>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d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 8 God Matter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도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 한 말씀 One Word

종말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분별합니다.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잠언의 히브리어 단어 '마살'은 '~의 권대', '비유'로 번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일정한 패턴들의 교훈을 간결하게 담은 문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비  
 늘 '잠'에 일생 '언'을 사용하여 마치 비늘로 지르듯이 가르치는 말이란 뜻이지  
 요.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삶을 깊이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  
 견하였습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아이들이"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권고의 핵심은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3-4절).  
 선물을 구하고 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  
 는 지혜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마 7:11).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야 하고 보  
 좌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  
 보면 의외로도 지혜를 구하거나 찾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필요성  
 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좌처럼 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이기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라도 명철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믿는 자는 구하고 찾  
 고 결국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는 하나님께 친히 주시는 선물이자(6  
 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뜸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  
 으십시오.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al" and means "... is the same as..."  
 It is translated as "pa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inctly containing cer  
 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life. In Chinese, it is 箴言, Jiamyan. It  
 consists of the word "Jian" which means "a needle" and "ya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wis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ke when a father admonishes h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  
 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Matt 7:11) If we want to gain wisdom, then we must as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wisdom. We must raise our vo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o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wisd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wis  
 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at we need wisd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  
 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have. Wisd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e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2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원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영국교회(영국)영국교회, 공회(A/C)  
 기쁨의 교회, 장로회(A/L)  
 천주교회, 천주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22

내지샘플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journaling application interface. At the top, it say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Below this, there are three numbered callouts:

-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Today's Gratitude Thanks Note). To the right of this callout is a checklist with items: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Did you think of Jesus when you first opened your eyes?),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and '단순기도 One Prayer'. Each item has a checkbox.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Below this is a large text area with a dashed border. Inside, there are prompts: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and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 6** A QR code labeled 'Facebook' with the URL 'www.facebook.com/kumcdevotion'.

At the bottom left of the interface, there is a small text box: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Read the Word for a day and record your heart and thoughts, insights, and decisions with Jesus, without being limited by time, anytime.)

###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http://www.facebook.com/kumcdevotion)

## 성경일독/말씀묵상

# 혼자서도 문제없다

### 1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http://www.facebook.com/kumcdevotion)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b>1</b> 베드로전서 1 Peter 1장 □
<b>5</b> 베드로후서 2 Peter 1장 □	<b>6</b> 베드로후서 2 Peter 2장 □	<b>7</b> 베드로후서 2 Peter 3장 □	<b>8</b> 요한1서 1 John 1장 □
<b>12</b> 요한2서 2 John 1장 □	<b>13</b> 요한3서 3 John 1장 □	<b>14</b> 유다서 Jude 1장 □	<b>15</b> 요한계시록 Revelation 1장 □
<b>19</b> 요한계시록 Revelation 6-7장 □	<b>20</b> 요한계시록 Revelation 8-9장 □	<b>21</b> 요한계시록 Revelation 10-11장 □	<b>22</b> 요한계시록 Revelation 12-13장 □
<b>26</b> 요한계시록 Revelation 18장 □	<b>27</b> 요한계시록 Revelation 19장 □	<b>28</b> 요한계시록 Revelation 20장 □	<b>29</b> 요한계시록 Revelation 21장 □
		<b>04 April</b>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05 April</b>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1,2,3서 요한계시록

## 베드로전후서 소개

**베드로전후서의 저자는 동일인물인가요?**

사도 베드로가 AD 64년 전후 소아시아 다섯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서신>으로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이후 기록으로 추정되는데, 내용은 유다서와 비슷하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1,12)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실루아노(실라)를 통해서 쓴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편지의 문체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조'로 여기지 않고, 사도의 분명한 전통과 권위에 종속되기를 원하는 이후의 기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베드로전서의 주요내용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용기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산 소망(1:3,13,21)을 갖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1:1,17; 2:11)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천국의 영광에 참여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4:12-5:9). 예수는 의인으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며(3:18), 그의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2:24).

### 베드로후서의 주요내용은?

영지주의 등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씌여진 베드로후서는 부도덕한 향락주의를 배격하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 교사들은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벧후 2:1; 유 1:4)이며, 그들은 아가페(애찬)를 더럽히고, 성도의 생활에서 율법의 위치를 극소화하고 자유를 강조함으로 스스로를 부도덕하게 하거나 음탕한 생활로 다른 이들까지 오염시켰습니다(벧후 2:10, 12, 18; 유 1:4, 12).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는 성도의 건실한 행동을 격려하고, 거짓에 대한 질책과 교회의 무질서를 책망하므로, 성도가 윤리적인 필요가 없다는 이단설인 도덕 무용론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 유다서 소개

###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성경에서 사도 유다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1:1) 되는데, 예수의 동생이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1:1)이라 지칭합니다. 유다서가 사도 야고보의 전통을 주장하지만 그 문체는 헬라적 유대교 배경을 가진 지식인의 것으로 보여지기에 베드로전후서와 같이 다른 기록자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 유다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서는 믿음을 위한 싸움이 그 주제입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과 정죄를 언급한 후에 믿음에 굳건히 설 것을 권면(1:20-21)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1:24-25)으로 마칩니다. 이런 내용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영지주의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도록 씌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방종거리로 오용한 사람들(1:4),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1:16)을 경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적 사실로써 보여주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1:11-19).

## 요한1,2,3서 소개

### 요한1,2,3서는 어떤 책입니까?

요한 1,2,3서는 요한서신이라고 하며, 교회공동체가 함께 받은 공동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 공동서신에 속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1,2,3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이 어디서 생겨나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를 만난 감격과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주며 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요한서신은 논문 형식의 요한일서와 편지 형식의 요한 이, 삼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도요한이 요한복음과 계시록, 요한서신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글의 내용과 문체를 비교해 볼 때 사도 요한과 '장로'요한이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한서신의 주제는 '사랑의 윤리에 대한 실천'인데, 이 '사랑의 윤리'는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 주신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실천은 성도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순종, 사랑 그리고 진리에 대해 가르치며, 성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 요한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요한서신은 영지주의 성향의 가르침을 반박하는데, 이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잘못된 기독교론의 문제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서 행합니다(요일 1:6).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요일 2:4)에 대한 분명한 경고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함으로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자기 안에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요일 1:8, 10). 이것은 예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요일 2:22-23)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요일 4:3; 요이 1:7) 함으로, 십자가와 대속 사건을 부인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요한서신은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남을 바라보게 합니다.

### 요한계시록 소개

####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또 묵시록이라고 불리지만, 내용을 반영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계 1:1)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 동의어가 137번이나 사용되었으며, 첫 장은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계 1:7)라는 선언으로 시작, 마지막 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 22:20)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계시(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한 책, 계시록은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기록이며, 사도 요한이 받아 적었기에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이 어려워 워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비성서적인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

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계 1:3)

###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시작이며 요한계시록은 그 결론이기에, 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처음 두 장은 첫째 아담의 실패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의 기록이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성취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는 기나긴 흑암과 죄악의 역사가 끼어 있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는 죄의 대속을 위해 희생양을 죽이는 성소제도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는 만 주의 주, 만 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계시로 마치게 됩니다. 모든 계시의 종합과 완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은 서로 만나게 되며 완전케 됩니다.

### 요한계시록을 요약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책으로, 고난과 박해로 곤경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7이란 숫자는 일곱 편지 외에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말이 와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그 이상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곧 온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Memo

---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

# 01

May 토 Sat

##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God gives us  
“Living Hope”

통독본문 Reading Plan

### 베드로전서 1 Peter 1장



새221장(통525장)  
주 믿는 형제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1장은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조금도 위태롭지 않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시민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해야 한다. 우리가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자원이 바로 주님께 있다.

### 베드로전서 1:1-12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 Reading insight

Chapter 1 teaches us what the essence of “suffering” is. When difficulty comes upon Christians, we are reminded it does not mean that we are abandoned by God. We are not in danger while we are in Christ. “Suffering” does not take us farther away from God, and we must hope and believe to the end that God would use even “suffering” to establish us as citizens of His kingdom. The source that keeps us from losing hope and continuing to live holy life lies in our LORD.

## 1 Peter 1:1-12

- 1**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ose who are elect exiles of the dispersion in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 2**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in the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and for sprinkling with his blood: May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 3**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e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 4** to an inheritance that is imperishable, undefiled, and unfading, kept in heaven for you,
- 5** who by God’s power are being guarded through faith for a salvation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 6** In this you rejoice,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if necessary, you have been grieved by various trials,
- 7** so that the tested genuineness of your faith--more precious than gold that perishes though it is tested by fire--may be found to result in praise and glory and honor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 8**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 Though you do not now see him, you believe in him and rejoice with joy that is inexpressible and filled with glory,
- 9** obtaining the outcome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 10** Concerning this salvation, the prophets who prophesied about the grace that was to be yours searched and inquired carefully,
- 11** inquiring what person or time the Spirit of Christ in them was indicating when he predicted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the subsequent glories.
- 12** It was revealed to them that they were serving not themselves but you, in the things that have now been announced to you through those who preached the good news to you by the Holy Spirit sent from heaven, things into which angels long to look.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을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1-2절)  
Why did Peter call the recipients of his letter “scattered stranger”? (1:1-2)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12절)  
Why should Christians live a “holy” life even in the midst of suffering? (1:3-12)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 나웅철(SC)  
내쉬빌한인교회, 강희준(TN)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나그네’로 산다는 것의 의미 The meaning of living as a stranger

현명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야 큰 고장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그리고 철저히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살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편지를 받는 이들의 출신 배경이나 지위 또는 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나그네’로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의 거주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꽃 길’만 걷거나,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우회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과 핍박이 우리 앞에 놓여있었다 할지라도 ‘우회로’를 피해, 굳건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돌보시는 이들이며,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밖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성장의 도구’로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절대로 이 소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자원(source)이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Wise people have their cars inspected regularly because that is how bigger problems can be prevented. Likewise, we must remind ourselves thoroughly every day who we are. Unlike worldly standards, our *raison d'être* is not determined by who our parents are, or where we live, or how much money we make. That is why Peter does not mention the personal background, social status, or wealth of the letter's recipients at the beginning of his letter. Peter called all of them (whether Jew or pagan) "strangers" because they had become inhabitants of this land and at the same time had become the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

But that does not mean that we will journey on "flowery roads" or "detours" that will lead to smooth paths without any obstacles. Though obstacles or distress may lie on the road, we should avoid the easy "detour" and walk on the road we are given with resolve that we must tread on. Christians are chosen and cared for by God. As a result, only God's plan matters even at the moment of suffering. So we must not wail or blame God for hardships in life but look at them as "an instrument of God to grow our spirituality." Keep praising God. On this earth we are just "strangers", that is,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 Never lose sight of this hope. The source of our holy life today lies in our LOR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02

##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Stay-at-Heaven


이영성 목사(감람 KUMC, HI)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가정’의 달은 난생처음 겪는 Stay-at-Home 행정명령으로 인해, 당황하며 보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면, ‘가정’에서 격리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집에 있는 가족들의 식사문제로 인해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급증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다시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Covid-19기간 동안 타의반, 자의반으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가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중에 하나는 “인생은 아름다워(Life Is Beautiful)”입니다. 1997년에 개봉하여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3개 부분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이탈리아에 사는 귀도라는 유대인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인 가난한 청년이 초등학교 교사이며 유대인이 아닌 이탈리아 아가씨 도라와 극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 후 조슈아라는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즈음에 이차 대전이 벌어져서, 이탈리아에서도 유대인들을 선별하여 수용소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귀도와 5살 어린 아들 조슈아도 체포되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내 도라는 이탈리아인이므로, 수용소에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남편과 아들을 따라서 자진해서 수용소로 갑니다.

무자비하고 참혹한 수용소 안에서도 어린 아들의 동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아버지 귀도는 수용소 생활이 마치 단체 게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영화의 끝자락에서 아버지 귀도는 독일군에 의해 사형장으로 가면서, 어린 아들이 숨어있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혹시 아들이 놀라서 뛰어나올까 봐 일부러 장난치듯이 쾌활하게 웃으면서 우스꽝스러운 큰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용소는 연합군에 의해 해방됩니다. 어린 아들 조슈아는 어머니와 만나게 됩니다. 영화는 조슈아가 어른이 되어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





버지가 희생당하신 이야기.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화이지만, 저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가정’이 작은 천국(Heaven)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선생님이나, 회당의 랍비보다도 부모의 역할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을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의무와 책임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 텍스트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을 수놓은 포대기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꼴로 글씨를 써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아무리 귀한 손님이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은 사랑과 토론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킨십을 하며, 안고서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암기 위주의 주입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교육 방법은 읽고 듣기만 하는 교육 방법보다 학습효과에 있어서 4-5배 더 효율적임이 미국의 연구기관(the 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이런 탁월한 ‘가정’ 교육이 역시 탁월한 인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4명 중에서, 진화론의 다윈(Charles Darwin)만 빼고,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심리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 자본론의 칼 막스(Karl Marx)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Covid-19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 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리모델링되어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간다면, Stay-at-Home 이 Stay-at-Heaven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 03

May 월 Mon

## 바른 관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The right relationship  
starts at home.

통독본문 Reading Plan

베드로전서 1 Peter  
2-3장



새263장(통197장)  
이 세상 험하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2장에서 베드로는 “경건하게 살라.”라고 도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부당한 고난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모범을 보여 주셨다.

3장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삶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남편은 아내를 사려 깊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다.

### 베드로전서 3:1-12

1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 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 Reading insight

In Chapter 2 of 1 Peter, Peter challenges Christians to live a “godly life” because God made us a “spiritual house” in Christ so that we would be a good role model for others. So even when Christians experience unfair suffering we must react the right way for the sake of God. Jesus is the perfect example when he faced unfair suffering.

1 Peter 3 asserts that Christians must unite and live in harmony with other people. Peter said our family life must be the starting point of such a life. Husbands must treat wives with thoughtful consideration and wives must respect their husbands. Thus, the first place to proclaim the beautiful virtues of God is within “our family.”

## 1 Peter 3:1-12

**1** Likewise, wives, be subject to your own husbands, so that even if some do not obey the word, they may be won without a word by the conduct of their wives,

**2** when they see your respectful and pure conduct.

**3** Do not let your adorning be external--the braiding of hair and the putting on of gold jewelry, or the clothing you wear--

**4** but let your adorning be the hidden person of the heart with the imperishable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n God’s sight is very precious.

**5** For this is how the holy women who hoped in God used to adorn themselves, by submitting to their own husbands,

**6** as Sarah obeyed Abraham, calling him lord. And you are her children, if you do good and do not fear anything that is frightening.

**7** Likewise, husbands, live with your wives in an understanding way, showing honor to the woman as the weaker vessel, since they are heirs with you of the grace of life, so that your prayers may not be hindered.

**8** Finally, all of you, have unity of mind, sympathy, brotherly love, a tender heart, and a humble mind.

**9** Do not repay evil for evil or reviling for reviling, but on the contrary, bless, for to this you were called, that you may obtain a blessing.

**10** For “Whoever desires to love life and see good days, let him keep his tongue from evil and his lips from speaking deceit;

**11** let him turn away from evil and do good; let him seek peace and pursue it.

**12**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prayer. But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는가? (1-7절)

How do I proclaim the beautiful virtues of God within my own family? (3:1-7)

문제는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차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8-9절)

The problem is not the “distinction”, but the problem lies in how we deal with the “distinction”. How do I deal with the “distinction” in our church? (3:8-9)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 조낙훈(TX)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박광배(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바른 관계,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The right relationship begins in our family life

우리는 밖에서의 여러 관계에는 온갖 노력을 집중하면서도 가정에는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복종’이란 말을 앞세워 아내들의 역할을 강요해 왔습니다. (이 중 많은 경우는 ‘복종’이라는 말의 성경적 이해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의도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종’은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의 표지입니다. 바른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우자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음가짐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일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이를 가정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We tend to pay more attention to all kinds of relationships outside of our family but neglect our own affairs at home. But for a successful marriage, husbands and wives must follow the rules written in the Bible. For a long time churches have imposed heavy burdens on the roles of wives in the name of “obedience”. (Many times, the word “obedience” was used far beyond the interpretation of what the Bible actually called for.) But this was not what Peter intended nor what the Bible intended to disseminate. The “obedience” mentioned in the Bible was based on equality not inequality. For a fair and right relationship of a married couple, both husbands and wives must share equal responsibility toward each other.

Such a mindset is equally applicable to all the relationships in the church. Summarizing Peter’s letter it could be said, “Consider first the other side.” When different branches of the church serve each other with this kind of mindset, the whole church will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Though it is important to be a role model for the people outside the church, if we do not practice what we preach at home, it is meaningless. The right relationship starts at home. The month of May is “Family Month.” Let us make our home a place to proclaim the beautiful virtues of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04

May 화 Tue

## 대가에 상관없이, 날마다

Regardless of  
the reward, live for  
God every day

통독본문 Reading Plan

베드로전서 1 Peter  
4-5장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죄를 짓는데 사용해 왔다.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지 말라. 이제는 이런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에게서 옳은 일을 하여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며 살라. 때로 옳은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만 한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서로가 있고, 또 신실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 베드로전서 4:1-11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4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 Reading insight

We have spent too much time so far committing sins. Let us not continue to dwell in sin. Now is the time to stop such a life and live our lives for God. The end time is near. Do righteous things for people so that glory may be given to God. When we serve others, glory is given to God. Love others. Sometimes we may encounter hardship while trying to do the right thing. However, we must do good to others while we entrust God with our own being. Even in the midst of suffering we can move forward because we have each other and our great LORD as our role model.

## 1 Peter 4:1-11

**1** Since therefore Christ suffered in the flesh, arm yourselves with the same way of thinking, for whoever has suffered in the flesh has ceased from sin,

**2** so as to live for the rest of the time in the flesh no longer for human passions but for the will of God.

**3** For the time that is past suffices for doing what the Gentiles want to do, living in sensuality, passions, drunkenness, orgies, drinking parties, and lawless idolatry.

**4** With respect to this they are surprised when you do not join them in the same flood of debauchery, and they malign you;

**5** but they will give account to him who is read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6** For this is why the gospel was preached even to those who are dead, that though judged in the flesh the way people are, they might live in the spirit the way God does.

**7**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therefore be self-controlled and sober-minded for the sake of your prayers.

**8** Above all, keep loving one another earnestly, since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9** Show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10** As each has received a gift, use it to serve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of God's varied grace:

**11** whoever speaks, as one who speaks oracles of God; whoever serves, as one who serves by the strength that God supplies--in order that in everything God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To him belong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람들의 비방(이상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가? (5-6절)

Though people might think us strange, why must we maintain our lives according to God's Word? (4:5-6)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사)을 받는다. 또 이 '은사'를 이웃과 나눌 책임도 있다. 나는 이 은사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9-11절)

Christians receive gifts from God and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share our gifts with our neighbors. How am I sharing my gifts? (4:9-11)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The greatness of God is our Power

고통과 고난은 참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우리에게 가해질 때, 우리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주위의 험박을 느낄 때, 종종 홀로 웅크리거나 주저앉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충고합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약간의 갈등이나 어려움만 있어도 금방 다른 교회로 옮기고, 방금 떠난 교회를 혹평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전하는 처음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함께 기도했으며, 서로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것을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관계 속에서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꺼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Pain and suffering are not easy to manage. Especially when they are afflicted upon us by others, it is unbearably difficult to take. So when we feel external threats, we sometimes crouch or squat all alone or just hide to avoid public attention. But Peter admonishes us to get up, go out, and continue to love and serve each other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Christ.

Nowadays we often see people leave and move to another church at the slight sign of difficulty or conflict and hear them severely criticize the church they just left. But the image of the early churches recorded in the New Testament was not like that. They needed each other, they prayed together, and they always encouraged each other to share mercy and love together. Likewise, we need each other and we need to draw strength from each other in our relationships. As long as we have each other and as long as our LORD is our role model, we can entrust our lives to the LORD and move forward. The greatness of our LORD is our power.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TX)  
동산연합감리교회, 유화청(TX)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05

May 수 Wed

##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통독본문 Reading Plan

베드로후서 2 Peter  
1장



새452장(통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교회 안의 배교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라고 당부한다. 특별히 1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개인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8-10절)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들의 삶을 바꾸고,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용기를 가지라.” 그는 ‘싸움꾼’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체험했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

### 베드로후서 1:1-11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 Reading insight

In this letter, Peter warned and admonished to overcome the false teachings by false teachers and false prophets in the church through spiritual growth. Chapter 1 especially encourages the growth of Christian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why our personal faith should not be stagnant. (1:8-10) Peter wrote, "Know and understand that the power of God would change your life, and is leading you so as to exercise positive and good influence on others, therefore have courage." He personally experienced a dramatic transformation from a "fighter" to a "servant" of Christ. Christianity does not call for stagnation without transformation. We must always seek something and continue to grow.

## 2 Peter 1:1-11

**1** Simeon Peter, a servant and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ose who have obtained a faith of equal standing with ours by the righteousness of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2** May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in the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our Lord.

**3** Hi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all things that pertain 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to his own glory and excellence,

**4** by which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very great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from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ecause of sinful desire.

**5** For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to supplement your faith with virtue, and virtue with knowledge,

**6** and knowledge with self-control, and self-control with steadfastness, and steadfastness with godliness,

**7** and godliness with brotherly affection, and brotherly affection with love.

**8** For if these qualities are yours and are increasing, they keep you from being ineffective or unfruitful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9** For whoever lacks these qualities is so nearsighted that he is blind, having forgotten that he was cleansed from his former sins.

**10** Therefore, brothers, be all the more diligent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for if you practice these qualities you will never fall.

**11** For in this way there will be richly provided for you an entrance into the eternal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능력)를 통해 내 삶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또는 달라진 점)는 무엇인가? (3-4절)  
What are the positive changes in my life through divine power? (1:3-4)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5-11절)

What must we do in order not to become “unproductive”? (1:5-11)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러브연합감리교회, 김다니엘(TX)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 유양진(TX)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우리의 출발점은?

Our starting point?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낯다른 선행과 높은 도덕성을 원하신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3절) 이 편지 안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성품'을 지니는 것입니다. (4절)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임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확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을 더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8절)

Many Christians believe that "Christianity" has something to do with "what God wants from us." Therefore many of us think that God wants us to have unusual traits of goodness and godliness while giving up many things that we like. But in reality it is the opposite. The second letter of Peter reveals the "big picture." Peter wants to reassure that instead the Bible wants to reveal "what God wants to do for His people."

For this, God has already given us everything we need. (1:3) In Peter's letter,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need to strive for but even these are coming from God and not through our wisdom or effort.

What God wants from us is to possess the same divine nature as His. (1:4) As Peter reminds us of the reason for His calling and election, he challenges us to make sure of our calling and election. This does not mean to make "sure of God." But it means to make more sure of ourselves.

Our starting point is not that "we must make ourselves worthy of God's love." Instead, by obeying the Gospel in all that we do we will be led to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power of God in His grace. Even today, seek God's grace and power. Then you will know Jesus Christ and will bear fruits in serving God. (1:8)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06

May 목 Thu

## 거짓 가르침에 주의하십시오

Be aware of false teaching

통독본문 Reading Plan

베드로후서 2 Peter 2장



새401장(통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베드로후서 2장은 이미 콘스탄틴 황제 전부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세상의 공격에 대한 방어태세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다. 말씀씨가 좋은 이들은 특히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덮어 빠지게 만드는 데 아주 능숙하다.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고 경계해야만 한다.

### 베드로후서 2:1-10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10**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 Reading insight

We can guess from Chapter 2 of the Book of 2 Peter that the secular world had already deeply penetrated churches even before the period of Emperor Constantine. Through this, we Christians realize that we must never let our guard down against worldly attacks no matter what period we live in. Because Satan's subtle trickery always exists, we must be careful. False teachers and false prophets are always around. Those with a gift of eloquence are particularly capable of trapping Christian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Gospel. We must know who those false prophets and false teachers are and must guard ourselves against them by knowing how they operate.

## 2 Peter 2:1-10

**1** But false prophets also arose among the people, just as there will be false teachers among you, who will secretly bring in destructive heresies, even denying the Master who bought them, bringing upon themselves swift destruction.

**2** And many will follow their sensuality, and because of them the way of truth will be blasphemed.

**3** And in their greed they will exploit you with false words. Their condemnation from long ago is not idle, and their destruction is not asleep.

**4** For if God did not spare angels when they sinned, but cast them into hell and committed them to chains of gloomy darkness to be kept until the judgment;

**5** if he did not spare the ancient world, but preserved Noah, a herald of righteousness, with seven others, when he brought a flood upon the world of the ungodly;

**6** if by turning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ah to ashes he condemned them to extinction, making them an example of what is going to happen to the ungodly;

**7** and if he rescued righteous Lot, greatly distressed by the sensual conduct of the wicked

**8** (for as that righteous man lived among them day after day, he was tormenting his righteous soul over their lawless deeds that he saw and heard);

**9** then the Lord knows how to rescue the godly from trials, and to keep the unrighteous under punishment until the day of judgment,

**10** and especially those who indulge in the lust of defiling passion and despise authority. Bold and willful, they do not tremble as they blaspheme the glorious one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경의 가르침, 즉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가? (1-3절)

As a Christian, how much do I understand the teachings of the Bible and the truth of the Gospel and do I understand it correctly? (2:1-3)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4-10절)

How does God ultimately handle false teachers? (2:4-10)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배혁(TX)  
성루기연합감리교회, 임찬순(TX)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해 나갑시다

Let us reaffirm our calling and election

베드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9절) 즉, 주님께서 그분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끝까지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하실 것임을 전합니다.(이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들,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10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오류에 속아 넘어갈 것이고, 거짓 선생들의 방법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쉽게 그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24:13) 말씀하셨고, 바울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 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감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해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이런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 내실 것이며, 불의 한 자들을 형벌 아래 두실 것입니다.

Peter reassures us that “the LORD knows how to rescue godly men from trials.” (2:9) That is, until the end the LORD will definitely save the righteous and those who are called by Him. (This was also proven by the experiences of Noah and seven other members of his family and Lot and his wife.) At the same time, Peter implores his readers to “make sure” of their calling and election.

Becaus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by the grace of God, we must live in grace every day. If we do not understand the truth correctly, we may easily stumble on falsehood, and if we cannot discern the method and teachings of the false teachers, we may easily become their prey. That is why Jesus said in Matthew 24:13,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and Paul encouraged in Philippians 2:12,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Those of us who were saved by the grace of God should make “sure” of our “calling” and “election” by daily increasing our “knowledge of Christ.” Our LORD will rescue us from trials and punish the unrighteou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07

May 금 Fri

## 간절히 사모하라

Yearn dearly

통독본문 Reading Plan

베드로후서 2 Peter  
3장



새453장(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옴을 느꼈던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오류를 넘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라고 촉구한다. 우리가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질 때,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말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

### 베드로후서 3:11-18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 Reading insight

As Peter felt the day of Christ's second coming approaching nearer and nearer, he encouraged his readers to overcome the fallacy of the "false prophets and false teachers," and to have hope and certitude of the second coming of Jesus who would correct the fallacy. When we have hope and certitude, we will be sustained to continue to live a godly life an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Therefore in spite of ever existing chaos, let us not despair and reaffirm that our LORD still rules this world. Let us continue to live our life in a way that exalts the LORD. We must grow in the grace of Christ and knowledge of our LORD.

## 2 Peter 3:11-18

**11** Since all these things are thus to be dissolved, what sort of people ought you to be in lives of holiness and godliness,

**12** wait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because of which the heavens will be set on fire and dissolved, and the heavenly bodies will melt as they burn!

**13** But according to his promise we are waiting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14** Therefore, beloved, since you are waiting for these, be diligent to be found by him without spot or blemish, and at peace.

**15** And count the patience of our Lord as salvation, just as our beloved brother Paul also wrote to you according to the wisdom given him,

**16** as he does in all his letters when he speaks in them of these matters. There are some things in them that are hard to understand, which the ignorant and unstable twist to their own destruction, as they do the other Scriptures.

**17** You therefore, beloved, knowing this beforehand, take care that you are not carried away with the error of lawless people and lose your own stability.

**18**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both now and to the day of eternity. Amen.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11절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고 묻는다. 11-18절을 참조하여 이 질문에 답해보라.

2 Peter 3:11 is asking,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Answer this question using verses 11-18 as a reference.

오늘 내 삶은 과연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  
(17-18절)

Is my life today ready for “the last day?” (3:17-18)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베드로연합감리교회 한어부, 김데이빗(TX)  
세상의 빛 연합감리교회, 김형남(TX)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Are you ready to receive Jesus?

6살 된 어린 딸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라 말하자, 엄마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에서 뭘 배웠는데?” 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에서 배운 것은 내가 결혼할 때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였어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날’은 혼인 잔치처럼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혼인 잔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과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그날’(주의 날)은 과연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6살짜리 아이처럼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다른 곳을 향해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십시오. 교회 안의 거짓 선생들은 우리에게 늘 골칫거리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그분의 임재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거룩한 사람(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살아갑시다.

When a six-year-old daughter told her mother that her most favorite story in the Bible was the story of a wedding in Canaan where Jesus turned water into wine, the mother was surprised. She asked her daughter, “Yay! What did you learn from that story?” The daughter answered, “I learned from the story that I better invite Jesus when I get married!”

The Bible describes the church as the “bride of Christ.” The day of Jesus’ “second coming” will be a happy day for us like a wedding day. But for non-followers of Christ, their wedding feast is not prepared. Only judgment and punishment await. How is the “day of the LORD” approaching each of us? Are we ready? Like the six-year-old girl, do you think “we better invite Jesus?”

Today is no exception, because today the world will try to lead us in a different direction than where we need to be. Resist that. The false teachers in our churches are always a source of our headache, but the promise of the second coming of Jesus is becoming clearer every day. His presence will be enough to defeat all attacks against us.

The second Letter of Peter admonishes us to become “holy people.” Today, the ministry of Christians is to become “holy people.” Let us continue to fix our eyes on our LORD and to live our lives for Him.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08

May 토 Sat

## 하나님과의 사귄, 예수님의 피면 충분합니다

Fellowship with  
God - the blood  
of Jesus is enough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일서 1 John  
1장



새252장(통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한일서 1장은 말한다. “당신은 지금 아프다. 당신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만약에 당신이 의사를 얻지 못하면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귄과 교제는 ‘회개’로부터 출발한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요한일서 1:5-2:2

**5**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 Reading insight

1 John 1 is telling us, “You are ill. You need a doctor. If you do not find a doctor you will die soon.” Yes. We are sinners. Therefore we must repent. Jesus will forgive our sins. To deny it is to make God a liar. The association and fellowship with God start with “repentance”. If we insist that we are “without sin,” we are fooling ourselves. But if we confess our sins, we will be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be cleansed of our sins, and establish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 1 John 1:5-2:2

**5**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proclaim to you,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is no darkness at all.

**6** If we say we have fellowship with him while we walk in darkness, we lie and do not practice the truth.

**7**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8** If we say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0** If we say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1** My little children, I a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 But if anyone does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2**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누군가와 바른 ‘관계’(사귄)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칙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In order to establish a right “relationship” with someone, we need to adhere to certain principles. What are they?

하나님과의 사귄과 교제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6-10절)

What is required of us now in order for us to establish the right association and fellowship with God? (1:6-10)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웨슬리연합감리교회, 주요한(TX)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 이진희(TX)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이유

The reason why we need to repent and be forgiven

C.S. 루이스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필요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약속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아는 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할 말이 없다. 기독교가 말하기 시작하는 때는 당신이 실제로 도덕법(Moral Law)이 있으며, 그 법 뒤에 어떤 힘(Power)이 있다는 것과, 당신이 그 법을 어겼으며 그 힘을 거스른 것을 깨달은 후다. 한순간도 더 일찍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아플 때 예야 당신은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순전한 기독교 중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에 대해 성경은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법(교제)이든 하나님과의 사법(교제)이든 모든 관계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기 위해, 또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사귀를 잃게 될 것이며, 둘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귀를 잃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Speaking of our need to repent and be forgiven, C. S. Lewis wrote, “Christianity tells people to ‘repent’, and promises them forgiveness. Therefore that message has no meaning to those people who do not feel any need for forgiveness. When Christianity began, it was after you had understood that there existed Moral Laws, and there existed certain Power behind them, and you have violated the Laws as well as the Power behind them. It does not happen a minute earlier. You would listen to a doctor only when you are ill.” (Excerpts from Mere Christianity)

As to the need for our repentance the Bible offers no doubt whatsoever. That is the basis of all fellowship among human beings as well as with God. We must forgive not only to prevent our spiritual depravity but also to enable us to continue our fellowship with God and with those who wronged us. If we did not forgive, we would lose three things. First, we would lose our fellowship with God. Second, we would lose our fellowship with other Christians. And finally, we would lose our own spiritual vitality.

From this point of view, how meaningful is this Bible message?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09

##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마음이 합해지는 어머니주일을 꿈꿉니다

조기현 전도사 (벨리 UMC, CA)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어머니주일입니다. 예전 신바람 웃음전도사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의 강연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열정, 미소, 사랑, 자유 등등 그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을 제치고 당당히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정된 것은 바로 “어머니, 엄마, Mother” 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뒷순위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힌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어머니라는 존재는 지구라는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아서 품어내고 낳은 후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사랑과 정성을 쏟아 길러내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자식 된 도리로 마땅히 어머니께 아버지께 효도해야 함을 모를 리 없겠으나 과연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



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했던 것들이 돌아보면 내 착각이요 나 스스로의 방식으로 혼자 만족하기 위한 것들이 많았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마음을 헤아리려는 애씀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식은 과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자식은 언제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과연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아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나름대로 양을 칠 수도 있고 양을 먹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근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충직한 지체로서, 직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때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때로는 사역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단다. 섬김에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단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네가 나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주님은 오늘도 누가 내 마음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나와 매우 값진 향유 순나드 한옥합을 단숨에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그녀를 힐난합니다. 그것은 낭비다! 그것은 그야말로 허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

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속마음일까요? 그 여인이 장례를 준비하고자 한일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자신의 속마음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그야말로 명백하게 낭비요 허비다. 그런데 너희가 아느냐? 이제 며칠에 못되어 내가 걸어가게 될 그 길을 보여 준 것이다. 나도 내 생명을 허비하고 그야말로 낭비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을 위해, 나를 죽이려는 바로 그자들을 위해 나는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생명 길을 열어젖힐 것이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내 심정을 바로 이 한 여인이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느낀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사랑했습니다. 순전한 나드향유 한 옥합은 그녀에게 그저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을까요.

작년 2020년도 내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 하나님께서 깊은 묵상을 주시고 또 그것을 곡을 지어 함께 나누게 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아들딸들아 너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을 품고 내 마음을 외쳐다오. 내 마음을 너희가 함께 경험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나만 바라보고 함께 일어가가지 않겠느냐.”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찬양가사(2020년9월)

“나의 사랑하는 자”

인생의 폭풍이 몰려와 내 영혼 두려울 때  
주님은 곁에 오사 깃가에 속삭이시네  
캄캄한 파도가 닥쳐와 깊은 곳 헤매일 때  
거기서 나의 소명 새롭게 하시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주만 바라보고 함께 가자시네  
나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네가 머무는 곳 곧 세계 서서  
빛의 자녀로 불렸으니 세상을 품고서 내 마음을 외쳐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가리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한없이 모자란 자식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진정 바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하루하루 내 안에 부어 주시고, 세상을 품고 그 마음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 10

May 월 Mon

## “하나님의 자녀” 들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The children  
of God” do not  
dwell in sin.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일서 1 John  
2-3장



새292장(통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백잡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위대하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가? 그러면 그분이 순결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 죄의 기원은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 요한일서 2:28-3:10

28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 Reading insight

The love of God toward us is truly great. Do you want to see God? Then since He is pure, cleanse yourself. People of God do not dwell in sin. If we know God, we must obey God and live our lives as Jesus did. As Jesus gave his life for us, we must offer ourselves for others, and we must love our brothers and sisters. "We must not love with words or tongue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Remember that the origin of sin is "Satan".

## 1 John 2:28-3:10

**28** And now, little children, abid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shrink from him in shame at his coming.

**29** If you know that he is righteous, you may be sure that everyone who practices righteousness has been born of him.

**1** See what kind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o we are. The reason why the world does not know us is that it did not know him.

**2** Beloved, we are God's children now,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appeared; but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because we shall see him as he is.

**3** And everyone who thus hopes in him purifies himself as he is pure.

**4** Everyone who makes a practice of sinning also practices lawlessness; sin is lawlessness.

**5** You know that he appeared to take away sins, and in him there is no sin.

**6** No one who abides in him keeps on sinning; no one who keeps on sinning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7** Little children, let no one deceive you. Whoever practices righteousness is righteous, as he is righteous.

**8** Whoever makes a practice of sinning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9** No one born of God makes a practice of sinning, for God's seed abides in him, and he cannot keep on sinning because he has been born of God.

**10** By this it is evident who are the children of God, and who are the children of the devil: whoever does not practice righteousness is not of God, nor is the on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28-3:3)

As Christians who began our faith journey when we trusted Jesus, what would be our next step? (2:28-3: 3)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의 자녀들"(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4-10절)

As John put i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ildren of God" and the "children of the devil?" (3:4-10)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월리안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 이병설(TX)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권성철(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신념’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신앙

The real faith is unveiled not by ‘belief’ but by ‘action’

미 재무성은 화폐 위조를 막기 위해 다양하고 정교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재질부터 시작해서 특수 잉크, 그리고 화폐의 두께 조절까지. 이는 특수한 장비와 기계들이 없이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범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품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위조범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짜 지폐’와 ‘진짜 지폐’의 특징들을 전하며, 믿음에서 떠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적그리스도’(Antichrist)의 특징은 (1)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결핍(2:9-10), (2) 세상을 사랑함(2:15-17), (3)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함(2:23) 등입니다.

요한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2:24)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2:28) 당부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면,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신념’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와 달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은 (1)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2) 서로를 사랑합니다. (3)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The U.S. Treasury Department deploys various ingenious strategies to prevent counterfeit money: the quality of the paper used, specially manufactured inks, control of the thickness of the paper, and so on. Without special equipment and tools, production of duplicates is impossible. In spite of the high technology deployed, counterfeiting is rampant. Counterfeiters can still produce “fakes so real” that even ordinary citizens cannot tell the difference.

Spiritual counterfeits penetrated the churches in Ephesus and led the church members astray. That is why Apostle John warned Christians not to walk away from faith, as he pointed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nets of “fake money” and “true money.” The tenets of “Antichrist” pointed out by John were (1) lack of love toward neighbors (2:9-10), (2) their love of this world (2:15-17), and (3) denial of Jesus as the Son of God (2:23).

John implores, “What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remains in you”, (2:24) and “Continu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be confident and unashamed before him at his coming” (2:28). He reassures us that when we follow faithfully our LORD, we will not be ashamed before him.

The true experience of Christians comes from “actions” not from “faith”. Unlike “Antichrist”, the “true Christian” whose hope is in Christ (1) purifies himself, (2) loves others, (3) and obeys the commandment of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11

May 화 Tue

## 순종하는 믿음이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The faith of  
obedience is  
the secret for victory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일서 1 John  
4-5장



새542장(통340장)  
주 예수 의지함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한일서 5장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순종'이 우리가 바라는 삶에 다다르게 해 주는 지름길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올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불순종'이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순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 요한일서 5:1-12

-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 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7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 8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 Reading insight

1 John 5 emphasizes that if we love God we would “obey” His commandments, and we would not consider it to be a “heavy burden” for us. If we believe that “obedience” was a short cut to arrive at the life that we long for, we would “obey”. In fact the reason for our disobedience is our lack of faith because we do not believe that “obedience” will bring joy to us and “disobedience” will harm us. If we accepted that “obedience” was absolutely necessary not only for the glory of God but also for our benefit, “obedience” would definitely not be difficult.

## 1 John 5:1-12

**1**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has been born of God, and 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loves who ever has been born of him.

**2** By this we know that we love the children of God, when we love God and obey his commandments.

**3**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4** For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5** Who is it that overcomes the world except the 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6** This is he who came by water and blood--Jesus Christ; not by the water only but by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 Spirit is the one who testifies, because the Spirit is the truth.

**7**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8**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9** If we receive the testimony of men, the testimony of God is greater, for this is the testimony of God that he has borne concerning his Son.

**10** Whoever believes in the Son of God has the testimony in himself. Whoever does not believe God has made him a liar,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testimony that God has borne concerning his Son.

**11** And this is the testimony, that God gave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12** Whoever has the Son has life; whoever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가? (1-3절)

Why does God demand “obedience” from us? (5:1-3)

왜 우리는 세상에 맞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하는 것인가? (4-12절)

Why must we be “victorious” over this world and not just be satisfied with putting up with this world? (5:4-12)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용석(TX)  
가나연합감리교회, 박주섭(V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우리의 사랑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Our love is proven by obedient faith

A.D 1,000년경 바바리아(Bavaria)의 헨리 8세는 궁정 생활과 군주로서의 일에 싫증이 났습니다. 그는 결국 수도사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지역의 수도원에 지원을 합니다. 수도원장인 리처드는 말했습니다. “폐하, 여기서 하는 서약이 ‘순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왕께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자 헨리는 “알고 있다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내 여생을 그대에게 순종하며 보낼 것이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도원장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왕이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시옵소서.”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순종함으로써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순종’은 종종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기억하고 붙들게 해 줍니다.

Circa A.D. 1000 King Henry VIII of Bavaria was getting tired of his life as a king and the lifestyle of his royal court. He decided to become a monk and applied to a nearby monastery. The chief of the monastery Richard said, “Your Highness, are you aware that the oath at this place is “obedience”? his would be a very difficult commitment for a king like you.”

Then King Henry replied, “I know. As Christ leads you, I would like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obeying you.” The chief replied again, “Then I will tell you, Your Highness, what to do. Pleas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and serve the position of kingship faithfully that was given by the Almighty God.”

When King Henry VIII died, people said this about him, “The King learned how to rule by obeying the LORD.” “Obedience” sometimes feels difficult because we have to do what we do not want to do. But regardless of who we are, we can faithfully serve Christ. The faith of Christians is based on this.

“We prove our love of God by our faith through obedience. Jesus gave us eternal life, and we can rest assured that we have eternal life and we can feel safe. The children of God do not continue to sin.” 1 John 5 helps us remember this truth and allows us to have a firm grip on this truth.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12

May 수 Wed

##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Am I a faithful pers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이서 2 John  
1장



새220장(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가족(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에서(성서 학자들 중에는 가족이 아니라 교회로 보는 이들도 있음.) '신실함'을 강조한다. 그들이 행한 신실한 삶의 모습을 칭찬하고, 그들이 복음에 있어서도 신실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권고한다. 요한은 믿음의 가정(또는 교회)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행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에게 맞서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전해질 때, 그것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 요한이서 1:4-11

4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 Reading insight

In John's letter to a specific family (a couple and their children – some Biblical scholars believe the family is a figurative designation of the church), he emphasized "faithfulness". Whereas John praised the faithful lifestyle of the family, he also admonished them "to watch out for deceivers" so that they would remain faithful to the Gospel. John wanted the Christian family (or church) to live a faithful life wherever they may be. Christians have a responsibility to practice the truth but also to protect the truth. Thus, we have to fight against the false teachers of our age and practice our faith in our lives. When the message of the Gospel is delivered through the love of Christ, it is a much more powerful message.

## 2 John 1:4-11

**4** I rejoiced greatly to find some of your children walking in the truth, just as we were commanded by the Father.

**5** And now I ask you, dear lady--not as though I were writing you a new commandment, but the one we have had from the beginning--that we love one another.

**6** And this is love, that we walk according to his commandments; this is the commandment, just as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so that you should walk in it.

**7** For many deceiver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those who do not confess the coming of Jesus Christ in the flesh. Such a one is the deceiver and the antichrist.

**8** Watch yourselves, so that you may not lose what we have worked for, but may win a full reward.

**9** Everyone who goes on ahead and does not abide in the teaching of Christ, does not have God. Whoever abides in the teaching has both the Father and the Son.

**10** If anyone comes to you and does not bring this teaching, do not receive him into your house or give him any greeting,

**11** for whoever greets him takes part in his wicked work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5절)고 권면한다. 그에 따르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6절)

Apostle John implores to “love one another.” (1:5) What is “love” according to John? (1:6)

“상급”(8절)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9-11절)

In order not to lose “what we have worked for” we ourselves need to be careful. (1:5) What do we have to do to protect and preserve the truth? (1:9-11)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권홍(VA)  
새빛교회, 김은관(V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신실함,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Faithfulness means to guard our position and not walk away

고대 폼페이(Mt. Vesuvius) 화산이 분출해 많은 사람들이 폐허 속에 매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에 유적들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는데, 어떤 이들은 피할 곳을 찾아가듯 지하실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다락방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손에 무기를 들고 성문 곁에 서 있던 채로 발견된 한 군인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산에서 분출한 재와 돌들이 그를 덮치는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숨 가쁜 순간에도 그의 손에 여전히 무기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대부분 무기를 버리고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의 신실함은 이렇게 천년이 지난 후에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에 대해 '우리도 이처럼 신실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우리를 흔들며 대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확고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손에 무기를 든 채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During the ancient history of Pompeii, Mt. Vesuvius erupted and buried many people alive in a heap of lava. As archeological excavation began many years later, a true picture of the catastrophe began to emerge. Some people were found in the basement as if they were trying to find a place to escape, and some people were found in the attic. They may have had the same motive.

Then the excavation revealed a soldier found with weapons still in his hands standing at the gate of the castle, and it became the talk of the town. Having been overrun by the volcanic ashes and rolling stones, the soldier was the last man standing. Even at a literally breathtaking moment, the soldier hung on to the weapons in his hands. That is amazing. Most people would have abandoned their weapons and have run away. The soldier's faithfulness was revealed to the world thousands of years later.

The Bible is challenging us to be as "faithful as the soldier of Pompeii" vis-a-vis Christ and the truth of the Gospel. We must not be deceived by those who entice us to walk away from "where we need to be" by shaking us. We must hold on to the position with resolve and determination. When Jesus returns, I hope that I too am standing firm and guarding the position with weapons in my hand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13

May 목 Thu

## 누군가를 대접할 때 일어나는 일

What Happens  
When You Host  
Someone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삼서 3 John  
1장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한삼서는 '가이오'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빌레몬서'와 같이 개인적인 서신이다. 요한은 이 서신에서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도록 부탁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 당시에는 호텔이나 식당이 드물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은 사람들의 접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 복음 전도자들을 접대하며, 그들의 사역을 도울 책임도 있었다. 성경은 이것이 신실한(좋은) 일이며,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또 상을 받을 일이라고 전한다.(마 10:41-42)

### 요한삼서 1:1-12

-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 3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 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 5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 6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도다
- 7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 8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 9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 12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 Reading insight

The book of 3 John is a letter to a person named Gaius and is a personal letter like the book of Philemon. In this letter, John asks Gaius to treat the itinerant preachers well and exhorts them to live a Christian life. When John wrote this letter, hotels and restaurants were scarce. Itinerant evangelists were forced to rely on the hospitality of the people. Early Christians had a responsibility to host the evangelists and help them in their ministry. The Bible tells us that this ministry is honorable, working for the truth, and rewarding. (Matthew 10:41-42)

## 3 John 1:1-12

- 1 The elder to the beloved Gaius, whom I love in truth.
- 2 Beloved, I pray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be in good health, as it goes well with your soul.
- 3 For I rejoiced greatly when the brothers came and testified to your truth, as indeed you are walking in the truth.
- 4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he truth.
- 5 Beloved, it is a faithful thing you do in all your efforts for these brothers, strangers as they are,
- 6 who testified to your love before the church. You will do well to send them on their journey in a manner worthy of God.
- 7 For they have gone out for the sake of the name, accepting nothing from the Gentiles.
- 8 Therefore we ought to support people like these, that we may be fellow workers for the truth.
- 9 I have written something to the church, but Diotrephes, who likes to put himself first, does not acknowledge our authority.
- 10 So if I come, I will bring up what he is doing, talking wicked nonsense against us. And not content with that, he refuses to welcome the brothers, and also stops those who want to and puts them out of the church.
- 11 Beloved, do not imitate evil but imitate good. Whoever does good is from God; whoever does evil has not seen God.
- 12 Demetrius has received a good testimony from everyone, and from the truth itself. We also add our testimony, and you know that our testimony is tru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5-8절)

Why is hospitality to others essential for Christians? (1:5-8)

요한은 '디오트레베'에게 그의 길을 바꾸도록 권했지만, '디오트레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9절)

John urged Diotrephes to change his way, but Diotrephes refused. Why did he refuse? (1:9)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가연합감리교회, 최윤석(VA)  
알링턴한인교회, 류영성(V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손님 대접,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Hosting guests will reap you heavenly rewards

벤저민 프랭클린은 “생선과 친구는 사흘이면 악취를 풍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사흘 이상은 머물지 말라는 것을 예뉘려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리이기 보다 그의 경험과 그가 가진 한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들이 채 되기도 전에 악취를 풍기는 친구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일주일 넘게 지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언제부터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고 바른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했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아마도 그는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사회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찾아오는 교만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개방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초대해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사역자들을 도우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또는 조직) 안에서 나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와 같이 선한 사람입니까? 아님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Benjamin Franklin said, “Fish and friends smell bad in three days.” It is a twisted expression that you should not stay in someone else’s house for more than three days. However, this statement is more of a reflection of his experience and his limitations than fact. In reality, we have friends who are stinky in less than two days, and we also experience friends who have no problems even after a week. In this regard, “when they start to stink” depends on our attitude towards them.

The clear fact is this. God is pleased with our hospitality to others. The Bible says this is right and honorable. But there were also people like Diotrefes who insisted on his way to the end. John introduces him: “Diotrefes who likes to be the highest among them.” Perhaps he was a person who preferred to be treated rather than to treat others. We must be wary of the temptations of pride that come when we exercise leadership in church and society and are in a position to influence others.

Try to open your home to others. Invite some people to fellowship with them. And help the ministers as much as you can. These people receive a special reward from God. Are you a good person like “Gaius” or “Demetrius” in our church (or organization)? Or are you a proud person like “Diotrefe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14

May 금 Fri

##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Fight hard for faith

통독본문 Reading Plan

유다서 Jude  
1장



새350장(통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유다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과 거짓 교훈들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하며, 그들의 영적인 기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연약한 신자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다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불경건한 자들에 맞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 자신을 믿음 안에 건축하고 악한 자들을 도우라. 예수님을 의뢰하면, 그가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 유다서 1:1-4, 17-23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17**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 Reading insight

The book of Jude warns of the dangers of heresy and false teachings that have entered the church. Obviously, their end is ruin. We must be on guard against them, guard ourselves from falling because of their spiritual deception, and be prepared to help weak believers. The message of Jud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y dear ones, fight hard to keep the faith against the ungodly ones who quietly come into the church and teach false doctrines. Build yourself in the faith and help the weak. Trust in Jesus and He will help you."

## Jude 1:1-4, 17-23

**1** Jude, a servant of Jesus Christ and brother of James, To those who are called, beloved in God the Father and kept for Jesus Christ:

**2** May mercy, peace, and love be multiplied to you.

**3** Beloved, although I was very eager to write to you about our common salvation, I found it necessary to write appealing to you to contend for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aints.

**4** For certain people have crept in unnoticed who long ago were designated for this condemnation, ungodly people, who pervert the grace of our God into sensuality and deny our only Master and Lord, Jesus Christ.

**17** But you must remember, beloved, the predictions of the apostles of our Lord Jesus Christ.

**18** They said to you, "In the last time there will be scoffers, following their own ungodly passions."

**19** It is these who cause divisions, worldly people, devoid of the Spirit.

**20** But you, beloved, building yourselves up in your most holy faith and praying in the Holy Spirit,

**21**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waiting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leads to eternal life.

**22** And have mercy on those who doubt;

**23** save others by snatching them out of the fire; to others show mercy with fear, hating even the garment stained by the fles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4절)

Why do we "contend for the faith?" (1:3-4)

'어떻게 거짓 교사들에 맞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유다는 뭐라고 제안하는가? (20-21절)

What does Jude suggest about "how to keep ourselves safe against false teachers?" (1:20-21)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애쉬번 한인교회, 강현식(VA)  
엠마오연합감리교회, 김철기(V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계속해서 힘을 내야 하는 이유

Why we need to keep ourselves strong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알리며, ‘그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영광의 노래’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계시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참고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데 필요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쩌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을 안전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영적인 타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 영적 타락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당부처럼 우리도 (1)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2) 성령으로 기도하며, (3)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4)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하며(영적으로 성장하며), 기도하고, 지키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거짓 교사들에 맞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길입니다.

Jude announces the dangers of false teachers, warns that “we must reject them,” and ends the letter with “a song of glory.” He tells his readers that there is One who is able to “protect you so that you will be unstoppable, and that you will stand blamelessly and joyfully before his glory.” That’s why we need to keep going. We are not sure how much longer we can endure, but the Lord will take care of us to the end and protect us from falling. What a great hope for us that there is someone who gives us the strength and comfort we need to get to the end!

Satan makes things that are dangerous to us seem safe. So they cause us to make mistakes and lead us to spiritual corruption. However, Christians should not fall into these deceptions and into the path of spiritual corruption. Like Jude’s call, we must (1) build ourselves on godly faith, (2) pray in the Holy Spirit, (3) keep ourselves in the love of God, and (4) wait for the mercy of Jesus Christ to attain eternal life. Building ourselves this way (growing spiritually), praying, keeping up, and waiting are the ways to arm ourselves against false teacher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15

May 토 Sat

## 믿음은 닫힌 현실 속에서 열린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Faith is seeing  
the open sky in  
a closed state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1장



새180장(통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한계시록’의 서론 역할을 하는 1장은 두려움과 고난의 시대에 찾아 오신 주님을 묘사한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이 책의 주인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교회와 종들을 붙드실 것(신적 통치)을 전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한다. 요한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하고 또 전해야 할 희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그 희망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한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닫힌 현실(문제 또는 상황) 속에서도 열린 하늘(하나님 또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

### 요한계시록 1:1-8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 Reading insight

Chapter 1, which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Revelation,” describes the Lord who comes in an era of suffering and fear. It brings comfort and hope by conveying that the Lord who overcame suffering and death is the master of this book, and that the Lord will sustain all churches and servants who are fighting the good fight of faith (divine reign). John introduces the reality of hope that we must hold onto and convey to those who are living in the times of suffering. That reality of hope is Jesus Christ. John challenges us in this way. “This is what it means to believe in the Lord. Look at the open sky (God or heaven’s hope) even when in a closed reality (problem or situation).”

## Revelation 1:1-8

**1**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to his servants the things that must soon take place. He made it known by sending his angel to his servant John,

**2** who bore witness to the word of God and to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even to all that he saw.

**3**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aloud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and who keep what is written in it, for the time is near.

**4** John to the seven churches that are in Asia: Grace to you and peace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and from the seven spirits who are before his throne,

**5**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kings on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has fre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6** and made us a kingdom,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7** 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ose who pierced him, and all tribes of the earth will wail on account of him. Even so. Amen.

**8**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요한이 밝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1-3절)

What kind of book is John’s “Revelation”, and what is the purpose of giving this revelation? (1:1-3)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4-8절)

How is God portrayed in today’s text? (1:4-8) What does this mean to you?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가 오시리라”**  
“He is coming”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7절)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그”(He)입니다. 이는 “오시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코마이’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에르코마이’는 요한계시록에 모두 네 번 쓰였는데, 전부가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시리라”의 주어가 되는 “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그”(주님)가 아닌, “구름”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구름’이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 하여, “그 사람이 바로 ‘나’(교주)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단에서는 ‘구름’이 ‘영’을 의미한다며, “그 영이 임한 육체가 바로 ‘나’(교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지, “주님이 누구(어떤 사람이나 방법)를 통해 오신다”가 아닙니다. 이를 잘못 해석하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을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큰 위로와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도 신실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가” 오시는 날, 주님은 이 길을 승리의 길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1:7) What is the key word in this passage? The word that is most emphasized in this passage is “He”. This becomes even more evident when you look at the Greek word “erchomai”, which is translated as “coming”. “Erchomai” is used four times in the book of Revelation, all of which are chosen to emphasize the subject of the action. In other words, it is emphasizing “He”, which is the subject of “coming”.

But the heresies emphasize “cloud”, not “he” (Lord). Some heresies say that “cloud” is an analogy to “person”, and “That person is ‘I’ (cult’s leader).” In another heresy, “cloud” means “spirit”, and in another heresy, “the body on which the spirit came is ‘I’ (cult’s leader).” However, the essence of these words is that “the Lord is coming again”, not that “the Lord is coming through someone or how”. If this is misinterpreted, the very purpose of writing this book will be different.

Hearing about “God who met John,” the early church community must have been convinced that God would meet them even in the midst of tribulation and persecution. They would have found great comfort and hope in that. The Lord is faithful even in tribulation. It might be a difficult faith journey, but on the day “he” comes, the Lord will turn this road into a path of victory. Let us live with confidence and hope.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턴사공의교회, 김영봉(VA)  
와싱턴제일교회, 정성호(V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16

##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하나님과 사귄

이요한 선교사(카자흐스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산 오르기”에 종종 비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생각이 바뀌어 “산 오르기”보다는 “광야 통과하기”가 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광야에서 ‘생존하기’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기’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살만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멈추거나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과연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침반은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필수품입니다. 또한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사귄”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사귄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광야의 험난한 환경을 이기는 힘이 되



고,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계속 진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과 죄 사함을 경험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들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들의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우리와 아주 가까이 머물며 우리랑 상관합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죄짓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동시에 어둠의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사귀는 힘을 더욱 친밀하게 유지하는 힘은 계명을 준수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요한일서 3:23).”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영생과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귀는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에 입성하시길 응원하고 소원합니다.

# 17

May 월 Mon

## “이기는 자”가 됩니다

Let us become  
“a person who is  
victorious”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2-3장



새314장(통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한계시록 2-3장은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교회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준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의심받는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주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이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님의 기대는 이것이다.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 요한계시록 2:1-7, 17, 3:21-22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Reading insight

Revelation 2-3 contains a message to the seven churches. From these words, we can see how close the Lord is with the Church. "The Lord never forsakes or gives up the church in any situation." These words give us great comfort and courage today as well. Even in the midst of doubting the Lord's power and love, "the church is valuable to the Lord." This also means that the Lord's expectations for the church are not insignificant. The Lord's expectation is that the church must be "the overcomer." At any moment, we must not stop coming to the Lord.

### Revelation 2:1-7, 17, 3:21-22

**1**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Ephesus write: 'The words of him who holds the seven stars in his right hand, who walks among the seven golden lampstands.

**2** "I know your works, your toil and your patient endurance, and how you cannot bear with those who are evil, but have tested those who call themselves apostles and are not, and found them to be false.

**3** I know you are enduring patiently and bearing up for my name's sake, and you have not grown weary.

**4** But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abandoned the love you had at first.

**5** Remember therefore from where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works you did at first. If not,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unless you repent.

**6** Yet this you have: you hate the works of the Nicolaitans, which I also hate.

**7**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the one who conquers I will grant to eat of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sup>7</sup>

**17**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the one who conquer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sup>7</sup>

**21** The one who conquers, I will grant him to sit with me on my throne, as I also conquered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22**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sup>7</sup>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이긴 자"(끝마침)가 되라 하지 않으시고, "이기는 자"(현재진행)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 (7절, 17절, 3장 21절)

God does not tell the church to be "the one who once gained victory" (final), but to be "the one who is victorious" (present progress). How are the two different? (2:7, 17, 3:21)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7절, 17절, 3장 21절)

What did God promise to "the one who is victorious?" (2:7, 17, 3:21)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패를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톤한인교회, 김영훈(VA)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 구정훈(VT)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흰 돌”을 주시는 하나님 God Who Gives a “White Stone”

계시록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단들은 이 돌을 ‘새 언약’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흰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새 언약’으로 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새 이름”(교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이 돌을 ‘심판의 도구’ 또는 ‘심판자’로 보고, 이 “돌”을 받은 사람이 ‘심판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받은 그들의 교주가 ‘거짓 목자들’(정통교회의 목회자들)을 심판하고, 새롭게 12지파(144,000명)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 내기를 원하셨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흰 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귀빈들을 초청할 때 ‘테세라’라는 “흰 돌”을 주었는데, “흰 돌”을 받는 것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 즉 ‘VIP’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흰 돌”을 ‘상급’으로 보지 않고, ‘심판의 도구’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인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 교훈’을 미워하는 것만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의 기준이 점점 모호해져 가는 시대에 교회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고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안디바’와 같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급’(흰 돌)이 있습니다.

In Revelation 2:17, God promises to give a “white stone” to those who are victorious. Heretics interpret this stone as the “new covenant.” They see the “new name written on the white stone as the “new covenant,” and claim that another name for Jesus is “the new name” (teacher). Another heresy sees this stone as “the judge’s instrument” or “the judge,” and claims that the person who received this “stone” is the “one who gained God’s commission as a judge.” So their cult leader who received the message of judgment judges the “false shepherds” (pastors of the Orthodox Church) and insists that 12 tribes (144,000 members) will be newly established.

However, these words were addressed to “Pergamum Church.” God wanted the members of “Pergamum Church” to win the good fight of faith, and He said that he would give the “white stone” as a gift to those who won that fight. In Bible times, when inviting distinguished guests, they were given a “white stone” called “Tessera”. Receiving a “white stone” meant qualifying to participate in the feast or becoming a VIP. So, if you don’t see the “white stone” as a “reward” but as a “tool of judgment,” it completely distorts the will of God.

The problem with Pergamum Church is that it has tolerated the “teachings of Balaam and Nicolaitans” in the name of “love”. They have forgotten that the “love” that God speaks of is not to embrace everything in the world, but to hate the “false teachings” that deviate from God’s Words. God wants the church to adhere to uncompromising faith in an age when the yardstick measuring morals is becoming increasingly vague in the name of “love”. Let’s become believers who faithfully keep their faith like “Antipas”. Those who have kept the faith to the end have “reward” (white ston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18

May 화 Tue

## “하늘 보좌”를 바라봅시다

Let's look at  
“The Throne in  
Heaven”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4-5장



새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한계시록 4장은 5장과 연결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시록 4-5장은 전체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반면, 2-3장은 지상의 교회가 직면한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서학자들은 4-5장이 앞으로 소개될 장들을 내다보게 해주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6장 이후에서 전하는 진노와 재앙,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방향 감각을 교회에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하늘의 음성(위로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다가올 재앙과 심판의 때를 잘 견뎌내야 한다.

### 요한계시록 4:1-11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 Reading insight

It is necessary to see Revelation 4 in connection with Chapter 5. Revelation chapters 4-5 as a whole deal with scenes unfolding from the heavenly throne, while chapters 2-3 focus on the reality faced by the church on earth. Biblical scholars say that chapters 4-5 serve as a "observatory" that allows us to look into future chapters. The reason is that it provides the church with a sense of perspective and direction to see the message of wrath, disaster, and judgment conveyed in Chapter 6 and later. Those of us who listen to the voice of heaven (the words of comfort) must well endure the times of suffering and persecution that lie ahead of us and the times of disaster and judgment to come.

## Revelation 4:1-11

- 1**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And the first voice, which I had heard speaking to me like a trumpet, said,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 2** At once I was in the Spirit, and behold, a throne stood in heaven, with one seated on the throne.
- 3** And he who sat there had the appearance of jasper and carnelian, and around the throne was a rainbow that had the appearance of an emerald.
- 4** Around the throne were twenty-four thrones, and seated on the thrones were twenty-four elders, clothed in white garments, with golden crowns on their heads.
- 5** From the throne came flashes of lightning, and rumblings and peals of thunder, and before the throne were burning seven torches of fire, which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 6** and before the throne there was as it were a sea of glass, like crystal. And around the throne, on each side of the throne, are four living creatures, full of eyes in front and behind:
- 7** the first living creature like a lion, the second living creature like an ox, the third living creature with the face of a man, and the fourth living creature like an eagle in flight.
- 8** And the four living creatures, each of them with six wings, are full of eyes all around and within, and day and night they never cease to say,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 9** And whenever the living creatures give glory and honor and thanks to him who is seated on the throne, who lives forever and ever,
- 10** the twenty-four elders fall down before him who is seated on the throne and worship him who lives forever and ever. They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saying,
- 11** "Worthy are you,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r will they existed and were create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한을 초청하십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본 것은 무엇인가? (2-6절)

God invited John to validate the message of consolation for the church. What did John see when he ascended to heaven? (4:2-6)

하나님이 '지상의 세계'(로마황제가 통치) 너머 '하늘의 세계'(하나님이 통치)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7-11절)

What is the reason why God showed the "heavenly world" (God ruled) beyond the "earthly world" (Roman emperor ruled)? (4:7-11)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애틀연합감리교회, 박세웅(WA)  
좋은씨앗교회, 정요셉(W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늘 보좌”가 주는 희망

The message of Hope from “the throne in heaven”

사람들은 흔히 기막힌 현실 앞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절망적이고 암담하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순간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라는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요한과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 ‘지상의 세계’ 너머 ‘하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에 만 몰두하지 않고, 그 문제 너머를 보게 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선은 늘 “하늘 보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보좌는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1) 하나님만이 고난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과 (2) 비록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3) 하나님은 세상을 굴복시킬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늘 보좌”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내려다봅시다. 마주 보고 있으면 크게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People often say, “The sky is falling” when confronting a terrible reality. It means that the reality they face is very desperate and dark. We also experience things like the sky is falling from moment to moment. We must not forget that in this moment of crisis heaven still exists.

God clearly affirmed the existence of a “heavenly world” beyond the “earthly world” for John and the Christian community, who were in despair in the face of persecution. He allows the church community to look beyond the problems, not just the problems that unfold before their eyes.

The eyes of the faith community should always remain on the “throne in heaven.” The throne has three meanings to believers. (1) God alone is “the source of comfort” to the suffering people of the Lord, (2) even though we are living under the rule of the Roman Emperor, “only God is our true King,” and (3) God did not tell us how to subdue the world, but gave us perspective to see the world with a different eye.

When we have a problem, let’s not just look at the problems that stand in front of us, but first look to the “throne in heaven.” Then once again, let’s look down at the problem. It looks big when you look at it from the front, but the problem gets smaller when you look down at it from the sk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19

May 수 Wed

## “큰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God who delivers us from “the great tribula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6-7장



새35장(통50장)  
큰 영화로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백잡기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위치한다. 6장이 무서운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한다면, 7장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인침을 받은 자 144,000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한다. 겉으로는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보자. 오늘도 주님의 대답은 분명하다. ‘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요한계시록 7:9-17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 Reading insight

Revelation 7 sits between the sixth and seventh plagues. Chapter 6 asks, “Who can stand?” (Who can escape this rage?) in front of the terrible wrath. Chapter 7 responds to them through “the 144,000 sealed ones” and “a great crowd that cannot be counted” to convey a comforting God. On the outside, God is portrayed as the one who brings judgment and disaster, but on the inside let’s feel the heart of God who wants them to be saved. Even today, the answer from the Lord is clear: ‘My people will never perish. The fate of my people is in my hands, and they will surely win.’

## Revelation 7:9–17

**9**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10**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11** And all the angels were standing around the throne and around the elders and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y fell on their faces before the throne and worshiped God,

**12** saying, “Amen! Blessing and glory and wisdom and thanksgiving and honor and power and might b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Amen.”

**13** Then one of the elders addressed me, saying, “Who are these, clothed in white robes, and from where have they come?”

**14** I said to him, “Sir, you know.” And he said to me, “These are the ones coming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They have washed their robes and made them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15** “Therefore they are before the throne of God, and serve him day and night in his temple; 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will shelter them with his presence.

**16** They shall hunger no more, neither thirst anymore; the sun shall not strike them, nor any scorching heat.

**17** For the Lamb in the midst of the throne will be their shepherd, and he will guide them to springs of living water, and 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6장에 소개된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encounter the story of wrath and judgment introduced in Chapter 6?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Why do you think Christians should not be afraid of judgment?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 박용규(WA)  
맑은 물 펠로십 한인교회, 김재선(W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요한계시록의 진수(眞髓)

The essence of the book of Revelation

하나님의 마음은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한결같습니다. 혹시나 그분의 백성들이 일곱 봉인 재앙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그 재앙을 조절하시며, 이 재앙이 “어린 양”에게 맡겨진 것임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도 실족하며 낙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며 당황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7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거기에 ‘인치심’을 받은 144,000명”이 있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하는 숫자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만큼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구원받은 이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증해야 합니다. 일곱 재앙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잠시 괴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답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큰 무리가 외쳐 부르는 ‘찬양’은 듣지 못하고, 바ibel 코드(?)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진수”를 놓치는 것입니다.

God's heart remains the same even while the judgment contained in the seven seals is taking effect. He controls the force of the plague so that his people do not stumble over the plagues of the Seven Seals, and reveals that these plagues are entrusted to the “Lamb.” God knows us so well. He knows how little things make us stumble and discourage. We are afraid and embarrassed like those who do not know God. So, God, who couldn't leave them alone, gives the words of Chapter 7 through John.

“At that time, there were 144,000 people who were marked with the seal of God and a large crowd came out and wore white clothes and worshiped the Lord.” The numbers conveyed here do not mean ‘to be saved only this much’ as the heretics claim, nor do they refer to ‘Jews’ as the dispensationalists claim. This is a symbolic expression of all those who are saved.

Therefore, we, who have been “sealed” by God's grace, must confess God as “my Savior and My King” every moment and affirm that we are the Lord's owned people. While the seven plagues unfold, people may experience affliction for a while, but they should praise the Lord as the people of the Lord who have been “sealed,” not groaning and complaining. In this passage, those who cannot hear the “praise” that a large crowd shouts out of, and those who cling to the Bible code (?) miss the “essence” of the book of Revelation.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20

May 목 Thu

##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when we pray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8-9장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 재앙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이다. 8-9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강도를 더해 가는 것을 본다.(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강해진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록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를 이상히 여기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 요한계시록 8:1-12

- 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 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 6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 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 11 이 별 이름은 쓴 썩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 썩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 Reading insight

Revelation chapters 8 and 9 are the second part of the Seven Plagues' narrative. In chapters 8-9 we see God's plagues on the world increasingly intensifying. (It grows stronger from a quarter to a third.) But in the midst of extreme misery, the world still does not repent and does not return to the Lord. Because of this, disaster will continue. So, what should God's people do in this situation? Even if the lures and persecutions of the world come, we should not be surprised or collapse. We have a mission to convey to the world that it is not too late to turn to God.

## Revelation 8:1-12

**1** When the Lamb opened the seventh seal, there was silence in heaven for about half an hour.

**2** Then I saw the seven angels who stand before God, and seven trumpets were given to them.

**3** And another angel came and stood at the altar with a golden censer, and he was given much incense to offer with the prayers of all the saints on the golden altar before the throne,

**4** and the smoke of the incense, with the prayers of the saints, rose before God from the hand of the angel.

**5** Then the angel took the censer and filled it with fire from the altar and threw it on the earth, and there were peals of thunder, rumblings, flashes of lightning, and an earthquake.

**6** Now the seven angels who had the seven trumpets prepared to blow them.

**7** The first angel blew his trumpet, and there followed hail and fire, mixed with blood, and these were thrown upon the earth. And a third of the earth was burned up, and a third of the trees were burned up, and all green grass was burned up.

**8** The second angel blew his trumpet, and something like a great mountain, burning with fire, was thrown into the sea, and a third of the sea became blood.

**9** A third of the living creatures in the sea died, and a third of the ships were destroyed.

**10** The third angel blew his trumpet, and a great star fell from heaven, blazing like a torch, and it fell on a third of the rivers and on the springs of water.

**11** The name of the star is Wormwood. A third of the waters became wormwood, and many people died from the water, because it had been made bitter.

**12** The fourth angel blew his trumpet, and a third of the sun was struck, and a third of the moon, and a third of the stars, so that a third of their light might be darkened, and a third of the day might be kept from shining, and likewise a third of the nigh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본문은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재앙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재앙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3-4절)

Today's text is located between the "Seven Seals" and "Seven Trumpets" plagues. How could Christians could endure in the midst of disaster? (8:3-4)

심판의 강도는 더해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3분의 2를 남겨두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7-12절)

The intensity of judgment increases, but God still sets two-thirds aside. Why? (8:7-12)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한명훈(WI)  
애플튼시온연합감리교회, 정희권(W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기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Prayer is a privilege given to us

우리는 지금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안에서 모든 정보를 단번에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기도'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님)이 '기도'하지 않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을 땅에 쏟아부을 때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많은 핍박과 조롱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도, 돈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핍박과 절망 속에 놓여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용기와 위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악의 도전에 맞서 싸울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people do not trust prayer. Prayer may seem silly in a world where you can get all the information instantly online. This is why many people (Christians are no exception) do not pray. But we have to believe that God works through our prayers.

Revelation 8 describes the scene where the prayers of the saints are delivered to God with incense, and when they are poured out on the ground, disaster and judgment come. It is to emphasize that God uses our prayer. Under the Roman Empire, many persecutions and ridicules were poured out on Christians who had no social status, no money, and no weapons.

So how could you endure extreme hardship? They prayed. In this way, prayer provided courage and comfort to the early church community in persecution and despair. It gave them the courage to face the challenge of evil. There is something we must remember in the face of a difficult reality: it is the fact that the door to heaven is still open to us.

God has given us the privilege of prayer. Even in the midst of disaster, the Lord performs His work with those who pray. I hope that we all will realize how precious and blessed this ministry of prayer given to us is and continue to yearn for the mission of prayer today. When we pray, God work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21

May 금 Fri

## 교회의 사명

Mission  
of the Church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10-11장



새350장(통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한계시록 7장이 '일곱 봉인' 재앙에 대한 일종의 삽입구였다면, 10장과 11장은 '일곱 나팔' 재앙의 삽입구이다. 이 두 개의 삽입구는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위로의 성격을 가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7장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고난 중에도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10장과 11장은 교회가 이러한 때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이단 종파의 주장처럼 인침심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명이 아니라, 인침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이다.

### 요한계시록 10:1-11

1 내가 또 보니 힘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3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 Reading insight

While Revelation 7 was a sort of insertion point for the “Seven Seals” plague, chapters 10 and 11 are the insertion point for the “Seven Trumpets” plague. These two inserts have the tone of consolation to the suffering church community, but a closer look reveals a difference. Chapter 7 emphasizes that the church, the sealed people of God, will escape wrath even during hardships, while Chapters 10 and 11 emphasize what the church should do in such a time. It is not the mission of striving to be sealed as claimed by any heretical sect, but the mission of revealing the Lord to the world and preaching the Gospel as a sealed person.

## Revelation 10:1-11

- 1** Then I saw another mighty angel coming down from heaven, wrapped in a cloud, with a rainbow over his head, and his face was like the sun, and his legs like pillars of fire.
- 2** He had a little scroll open in his hand. And he set his right foot on the sea, and his left foot on the land,
- 3** and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like a lion roaring. When he called out, the seven thunders sounded.
- 4** And when the seven thunders had sounded, I was about to write, but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ing, “Seal up what the seven thunders have said, and do not write it down.”
- 5** And the angel whom I saw standing on the sea and on the land raised his right hand to heaven
- 6** and swore by him who lives forever and ever, who created heaven and what is in it, the earth and what is in it, and the sea and what is in it, that there would be no more delay,
- 7** but that in the days of the trumpet call to be sounded by the seventh angel, the mystery of God would be fulfilled, just as he announced to his servants the prophets.
- 8** Then the voice that I had heard from heaven spoke to me again, saying, “Go, take the scroll that is open in the hand of the angel who is standing on the sea and on the land.”
- 9** So I went to the angel and told him to give me the little scroll. And he said to me, “Take and eat it; it will make your stomach bitter, but in your mouth it will be sweet as honey.”
- 10** And I took the little scroll from the hand of the angel and ate it. It was sweet as honey in my mouth, but when I had eaten it my stomach was made bitter.
- 11** And I was told, “You must again prophesy about many peoples and nations and languages and king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회개하지 않은 세상’(9장 참조)을 향해 천사가 들고 온 것은 무엇인가? (2절)

What was the angel bringing to the “unrepentant world?” (9:2)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는 달면서도 썼는데, 이는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준다. 복음이 달게 느껴질 때와 쓰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9-10절)

The “scroll” that John ate was sweet and sour, which shows how the gospel works. When does the Gospel feel sweet and when is it sour? (10:9-10)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참 아름다운 연합감리교회, 김성근(W)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이대규(W)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먼저 복음의 ‘단 맛’을 경험하십시오 First, experience the “sweet taste” of the Gospel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쓰디쓴 고난이 따르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고된 사역의 현장에 무턱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단 맛’을 풍성하게 경험한 자로서 고난의 현장에 뛰어드는 백성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은혜의 ‘단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단 맛’은 경험하지 못한 채 사역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 사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풍성케 하십니다.

요한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은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였습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이 들더라도 회개할 줄 모르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말씀을 먹은 자만이 펼칠 수 있고, 말씀의 ‘단 맛’을 경험함으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갑시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쓰디쓴 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단 맛’을 아는 사람은 고난의 ‘쓴맛’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God’s word is “sweet like honey”, but people often suffer bitterly in order to deliver it. Chapter 10 of Revelation tells the scene of a person who has experienced the “sweetness” of the Gospel richly plunging into the field of suffering, rather than impulsively entering the field of hard work. In order to handle the Lord’s work well, you must first experience the “sweet taste” of grace. If you focus solely on ministry without experiencing the “sweet taste” of the Gospel, the ministry cannot last long. To this end, God revives and enriches our souls with the Word today.

Another command given to John was, “You must prophesy again.” No matter how hard it is, no matter how weary we are, we must preach the Gospel to a world that does not know how to repent. All the ministry of the church can be performed only by those who have experienced the “sweetness” of the Word.

So now, “Lord, here I am, send me.” Let’s go out, shouting boldly. Those who are willing to experience bitterness for the Lord will experience a “honey-like” life that no one can taste. Anyone who knows the “sweetness” of grace can endure the “bitter taste” of suffering.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22

May 토 Sat

## 교회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Church, win the  
spiritual battle

특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12-13장



새348장(통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은 하늘과 땅에서 본 큰 환상을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해(sun)를 옷 입은 여자’(교회)이며, 상대는 ‘용’(사탄의 우두머리)이다. 그리고 중심인물은 ‘여자가 낳은 아이’(그리스도)다. 이 밖에 다른 이들도 무대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들은 모두 마귀와 그리스도, 마귀와 교회와의 ‘영적 전투’를 그리고 있다. 이 환상은 13장 까지 이어진다. 이번에는 등장인물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바뀌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드러날 ‘거짓 지도자’(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그저 ‘용’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일 뿐이다.

### 요한계시록 12:1-12

- 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요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 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지라
- 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 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 Reading insight

In Revelation 12, John tells a detailed vision he saw in heaven and on earth. The main character is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church) and the other is a “dragon” (the head of Satan). Another main character is “a child born by a woman” (Christ). Others also appear on the stage for a while and then disappear, all depicting the spiritual battle between the devil and Christ and the devil and the church. This illusion continues through Chapter 13. This time, the characters are replaced by “the beast from the sea” and “the beast from the earth,” referring to “the false leader” (antichrist) and “false prophet” that will be revealed before Christ’s Second Coming. However, he is just a minion who acts according to the orders of the dragon.

## Revelation 12:1–12

**1** And a great sign appeared in heaven: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with the moon under her feet, and on her head a crown of twelve stars.

**2** She was pregnant and was crying out in birth pains and the agony of giving birth.

**3** And another sign appeared in heaven: behold, a great red dragon, with seven heads and ten horns, and on his heads seven diadems.

**4** His tail swept down a third of the stars of heaven and cast them to the earth. And the dragon stood before the woman who was about to give birth, so that when she bore her child he might devour it.

**5** She gave birth to a male child, one who is to rule all the nations with a rod of iron, but her child was caught up to God and to his throne,

**6** and the woman fled into the wilderness, where she has a place prepared by God, in which she is to be nourished for 1,260 days.

**7** Now war arose in heaven, Michael and his angels fighting against the dragon. And the dragon and his angels fought back,

**8** but he was defeated, and there was no longer any place for them in heaven.

**9** And the great dragon was thrown down, that ancient serpent, who is called the devil and Satan, the deceiver of the whole world--he was thrown down to the earth, and his angels were thrown down with him.

**10** And I heard a loud voice in heaven, saying, “Now the salvation and the power and the kingdom of our God and the authority of his Christ have come, for the accuser of our brothers has been thrown down, who accuses them day and night before our God.

**11** And they have conquered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for they loved not their lives even unto death.

**12** Therefore, rejoice, O heavens and you who dwell in them! But woe to you, O earth and sea, for the devil has come down to you in great wrath, because he knows that his time is shor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요한이 전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2절)

How was the appearance of the “church” described by John? (12:1-2)

요한의 환상에서 결국 ‘승자’와 ‘패자’는 누구였는가? (4-5절, 7-12절)

Who were the ultimate “winners” and “losers” in John’s vision? (12:4-5, 7-12)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몽고메리주님의 교회, 유혁재(AL)  
프랫빌한인교회, 홍성국(A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승리의 비결

The secret for victory

요한이 본 환상에서 '용'(마귀)의 공격 목표는 '예수님'(여자가 낳은 아이)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패배하게 되죠. '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교회'(해를 옷 입은 여인)를 공격합니다. '용'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요한의 환상에 따르면, 여인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을 두었으며, 머리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는 교회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한 마디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또 '마귀'가 주님의 싸움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봅니다. '미가엘'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해, 결국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마귀'가 결국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11절에 따르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낸 사람들은 모두 (1)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갔고, (2) 말씀으로 위협을 이겨냈으며, (3)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와 끝까지 싸우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In the vision John saw, the opponent of the "dragon" (the devil) was "Jesus" (a child born by a woman). The dragon eventually loses. The dragon does not stop here, this time attacking the church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How should the church respond to the dragon's challenge? According to John's vision, the woman was clothed with the sun with the moon under her feet and wore a crown of twelve stars on her head. This is to say that the church is an indescribably glorious being. In other words, the image of the church reflected in God's eyes was a precious being. We, too, who are engaged in spiritual battles, must realize how precious we are and not be caught up in a sense of defeat and inferiority.

In the text, we also see that the devil is no match against the Lord. He is also defeated in the fight against "Michael," and is eventually thrown out of heaven to earth. What we can tell from this is that the devil is ultimately a loser. No matter how much he growls toward Christians, he can never hurt us.

According to verse 11, all those who survived the attack of the devil (1) had gone out with faith in the power of the precious blood, (2) overcame threats with the Word, and (3) committed even to death. We must also resist the devil like this. The saints who do not fear death and fight to the end with the devil will surely win.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23

##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Coram Deo

강현중 목사(토렌스 KUMC, CA)

얼마 전까지 3개월이 넘도록 기침과 가래가 멈추지를 않고 점점 증세가 심해져서 밤에 잠 자기도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며 폐렴을 의심하게 되었다. 알아보니 폐렴이라면 다른 증상이 나타나야 한하기에 폐렴은 아닌 것으로 여겼지만, 폐렴이 아니라면 그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폐암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를 폐암 환자로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삼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만일 폐암이면 얼마나 많이 전이되었을까', '의사를 만나서 듣게 되는 소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걱정이 엄습해 왔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으면 부모님은 아들이 세 명이나 더 있으니 나머지 아들들이 잘 모시겠고, 딸아이는 아빠 없이 자랄 것이 애처롭기는 했으나 아빠 뭇까지 두 뭇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엄마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했다. 그리고 아내 는? 바로 걱정을 접었다.

내 아내는 남편 없으면 훨씬 멋있고 폼 나게 살 수 있는 여자였다. 목사 사모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훨씬 편안히 살 아내를 생각하니 가족에 대한 모든 걱정은 털어 낼 수 있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을 털어내자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생각이 전이되었다. 지금 목회지 파 송 받으려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좋은 목회자가 파송 받아 오게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 이야 워낙 근본이 좋은 성도들이니 서로에게 축복이 될 듯싶었다. 이렇게 가족과 교회, 모든 주변 정리를 끝내고 나니, 죽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나온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에 접어들게 된다. 정말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하게 되니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생이 나의 천국행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초조함이 불안감의 모습으로 엄습해 옴을 느낀다. 나에게 시간이 더 필요함을 절실하게



고백하게 된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지나온 나 자신의 행적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의사를 만났다. 진료를 마친 후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떨리는 심정으로 경청한다. 폐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코와 목의 문제라며 약을 보름 치 처방해 준다. 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과거의 잘못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기에, 내게 있어 그 약은 단순히 목과 코를 치료해주는 약이 아닌 지나온 내 인생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는 약이었다.

내게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한 가지 예언은 할 수 있다. 바로 당신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사람인 이상 언젠가는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살아생전 내 행위에 대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공평한 이치이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수십 년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시지 않았다.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시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어 알고 계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가를 해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자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할 수 없다’는 자신의 실존적 깨달음에 기인한 고백이었으며, 요셉의 이러한 ‘Coram Deo’ 신앙의 정신이, 먼 훗날 존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에게, 끝없이 가해지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신앙적 의지와 신조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공의롭게 살아야 하며,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경각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죽어 하나님 앞에서 계 될 때, 내가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하겠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 24

May 월 Mon

## 마지막 날,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설 것인가?

On which side will  
we stand on  
the last day?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14-15장



새589장(통308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한계시록 14장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면을 보여준다. 하나는 144,000명이 시온 산에 우뚝 선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장면이고(1-5절), 다른 하나는 흰 구름과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땅에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다.(14-20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곡식 추수’(의인)와 ‘포도 수확’(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음.) 또 위의 두 장면 속에 등장하는 그룹들의 결말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 ‘짐승’의 세력에 끝까지 저항했던 이들이 맞이한 결말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에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요한계시록 14:1-5, 14-20

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려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 Reading insight

Revelation 14 presents two striking contrasts. One is a scene where 144,000 people worship the Lamb who is standing tall on Mount Zion (14:1-5), and the other is a scene where a person sitting on a white cloud swings a sickle on the ground. (14:14-20, Christ's Second Coming is described as "the harvest of the grain" (the righteous) and "the harvest of the grapes" (the wicked).) In addition, the closure of the groups appearing in the two scenes above is also conveyed. The outcome of those who resisted the forces of "to the end" and the consequences of judgment against "the ones who worshiped and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his idol" are introduced. Through this, we can again confirm that the saints will surely win at the end.

## Revelation 14:1-5, 14-20

**1** Then I looked, and behold, on Mount Zion stood the Lamb,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2**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like the roar of many waters and like the sound of loud thunder. The voice I heard was like the sound of harpists playing on their harps,

**3** and they were singi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before the elders. No one could learn that song except the 144,000 who had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4** It is these who have not defiled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are virgins. It is these who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These have been redeemed from mankind as firstfruits for God and the Lamb,

**5** and in their mouth no lie was found, for they are blameless.

**14** Then I looked, and behold, a white cloud, and seated on the cloud one like a son of man, with a golden crown on his head, and a sharp sickle in his hand.

**15** And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calling with a loud voice to him who sat on the cloud, "Put in your sickle, and reap, for the hour to reap has come, for the harvest of the earth is fully ripe."

**16** So he who sat on the cloud swung his sickle across the earth, and the earth was reaped.

**17** Then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in heaven, and he too had a sharp sickle.

**18** And another angel came out from the altar, the angel who has authority over the fire, and he called with a loud voice to the one who had the sharp sickle, "Put in your sickle and gather the clusters from the vine of the earth, for its grapes are ripe."

**19** So the angel swung his sickle across the earth and gathered the grape harvest of the earth and threw it into the great winepress of the wrath of God.

**20** And the winepress was trodden outside the city, and blood flowed from the winepress, as high as a horse's bridle, for 1,600 stadia.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던  
144,0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4-5절)

Who were the 144,000 who  
sang new songs in front of  
the throne? (14:4-5)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19-20절)

What is the end of “the one  
who worships and receives  
the mark of the beast and his  
idol?” (14:19-20)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옥(AR)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AR)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구원 옆에 있는 진노’를 전하는 이유

The reason for conveying the image of “wrath next to salvation”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새 노래를 부르는 144,000명’과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대열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포도 수확’은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는 ‘세 천사의 메시지’(6-1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라고 전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다가올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 옆에 있는 진노’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과 ‘축복’이란 말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더 이상 그것을 은혜와 감사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배불리 먹고 살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다가, 주변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새삼 감사를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reason God showed us “the 144,000 singing new songs” and “angels over fire” through John is to make sure that we too stand in the ranks of those who sing of victory in the last days. The “grape harvest” conveyed in the text reminds us of how miserable the fate of living without the Lord is. Through this we realize once again how blessed and grateful it is to live in the Lord.

This can also be seen in “The Three Angels’ Message.” (14:6-13) The first angel tells all the nations on earth, “Fear God and give glory to Him alone.” The second angel proclaims “the destruction of Babylon,” which is a warning to “flee from the wrath and judgment to come.” The third angel delivers a message of judgment to those who worshiped the beast and his idol, reminding us of how terrible the wrath of God is.

However, the reason the Bible conveys the image of “wrath next to salvation” to believers is that we are so accustomed to the words of “salvation” and “blessing” that we no longer accept them with grace and gratitude, but take them for granted. We don’t know how grateful the blessings are when we enjoy the abundance of foods, but it’s like feeling grateful when we see people dying of hunger around us. Through these words, I hope that we see again how precious and touching the events of Jesus’ cross and resurrection ar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25

May 화 Tue

##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Lesson from  
the Fall of Babyl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16-17장



새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드디어 일곱 재앙이 모두 끝났다. 이제 남겨진 것은 악인들의 멸망과 교회의 승리이다. 요한은 악의 세력들이 차례로 파멸 당하는 장면을 전한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벨론’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도성으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구약시대의 ‘바벨론’은 오래 전 멸망했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도성 ‘바벨론’이, 온갖 음행과 교만으로 가득 찬 ‘바벨론’이 마침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듯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는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17장에서는 ‘바벨론’이 음녀로, 18장에서는 ‘도성’으로 표현됨.)

### 요한계시록 17:7-18

7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니

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 Reading insight

Finally, all seven plagues are over. What is left now is the destruction of the wicked and the victory of the church. John describes the scene where the forces of evil are destroyed one after another. The first object is “Babylon”. In the book of Revelation, “Babylon” means “Roman Empire” as a city that has turned away from God. (“Babylon” in the Old Testament era was destroyed a long time ago.) The city of Babylon, which was filled with all kinds of fornication and pride and appeared unlikely to collapse forever, is finally judged. To emphasize this, the story of the destruction of “Babylon” is introduced in detail in two chapters, chapters 17 and 18. (In chapter 17, “Babylon” is symbolized as a harlot and in chapter 18 as a ‘city’.)

## Revelation 17:7-18

**7** But the angel said to me, “Why do you marvel? I will tell you the mystery of the woman, and of the beast with seven heads and ten horns that carries her.

**8** The beast that you saw was, and is not, and is about to rise from the bottomless pit and go to destruction. And the dwellers on earth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ill marvel to see the beast, because it was and is not and is to come.

**9** This calls for a mind with wisdom: the seven heads are seven mountains on which the woman is seated;

**10** they are also seven kings, five of whom have fallen, one is, the other has not yet come, and when he does come he must remain only a little while.

**11** As for the beast that was and is not, it is an eighth but it belongs to the seven, and it goes to destruction.

**12** And the ten horns that you saw are ten kings who have not yet received royal power, but they are to receive authority as kings for one hour, together with the beast.

**13** These are of one mind, and they hand over their power and authority to the beast.

**14** They will make war on the Lamb, and the Lamb will conquer them, for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nd those with him are called and chosen and faithful.”

**15** And the angel said to me, “The waters that you saw, where the prostitute is seated, are peoples and multitudes and nations and languages.

**16** And the ten horns that you saw, they and the beast will hate the prostitute. They will make her desolate and naked, and devour her flesh and burn her up with fire,

**17** for God has put it into their hearts to carry out his purpose by being of one mind and handing over their royal power to the beast, until the words of God are fulfilled.

**18** And the woman that you saw is the great city that has dominion over the kings of the eart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음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5절)

What does the “prostitute” in the text represent? (17:5)

천사는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해석을 전하면서, 최후의 전쟁 자체보다는 결과만을 전한다.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14절)

The angel conveys the interpretation of “Babylon” and the beast, only about the results rather than the final war itself. What was the outcome of the war? (17:14)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김찬홍(AZ)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조형(AZ)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우리입니다

What flows from within us is the real us

짐승의 통치 아래 “열 뿔”로 상징되는 왕들은 막강한 힘을 내세워 “어린 양”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의 최후 승자는 “어린 양”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한다.” ‘주님과 그의 백성들이 이긴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식 성공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 되느냐? (세상적인 성공) 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우리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주님의 ‘참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Under the beast’s rule, the kings, symbolized by the “ten horns,” use great power to wage war with the “Lamb”. However, the final winner in this battle is “The Lamb.” This allows us to be convinced that only the Lord has the power to overcome the world. Because he triumphed, we also will win. The phrase “the Lord and His people triumph together” also means that evil will surely perish.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people who waste their lives for success in the “Babylon” style. But Christians should not sacrifice eternal things for things that will eventually disappear.

What should we really pursue in a world where the values of “Babylon” dominate? What kind of person are you becoming? It shouldn’t be about worldly success. It should be about holiness and truthfulness. It is because the inner man proves who we are, not the outer man. What flows from within us is the real us.

In addition, our goal is to become the joy of the Lord. Let’s not forget that the path to victory in the midst of the lure of the harlot “Babylon” is to live as the “true bride” of the Lor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26

May 수 Wed

## 멸망 속에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A message of hope  
in the midst of  
destruc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18장



새348장(통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한계시록 18장은 17장에 이어 '바벨론'의 멸망을 담고 있다. '바벨론'에 초점을 맞추어 '바벨론'의 멸망과 그 이유, 또 멸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왕, 상인, 선원)의 애통함을 전한다. 17장이 '바벨론'을 '음녀'로 묘사했다면, 18장은 '큰 성읍'(city)으로 그려지는데, 그 성읍의 운명이 바다 한가운데 비참하게 던져진 "큰 맷돌"과 같다. 하지만 패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4절, 20절)는 여전히 선포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요한계시록 18:1-8, 20

1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도다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갹갹을 갹갹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갹갹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갹갹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 Reading insight

Revelation 18 describes the destruction of Babylon. Focusing on Babylon, the chapter announces the destruction of Babylon and the reasons behind it. It also conveys the grief of those (kings, merchants, and sailors) who were damaged by the destruction. Chapter 17 describes Babylon as a “prostitute,” while Chapter 18 depicts it as “a great city,” whose fate is like a “big millstone” thrown miserably in the middle of the sea.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in the midst of the news of destruction, the message to the Lord’s people is still being proclaimed. (18:4, 20)

## Revelation 18:1–8, 20

**1** After this I saw another angel coming down from heaven, having great authority, and the earth was made bright with his glory.

**2** And he called out with a mighty voice,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She has become a dwelling place for demons, a haunt for every unclean spirit, a haunt for every unclean bird, a haunt for every unclean and detestable beast.

**3** For all nations have drunk the wine of the passion of her sexual immorality, and the kings of the earth have committed immorality with her, and the merchants of the earth have grown rich from the power of her luxurious living.”

**4** Then I heard another voice from heaven saying, “Come out of her, my people, lest you take part in her sins, lest you share in her plagues;

**5** for her sins are heaped high as heaven, and God has remembered her iniquities.

**6** Pay her back as she herself has paid back others, and repay her double for her deeds; mix a double portion for her in the cup she mixed.

**7** As she glorified herself and lived in luxury, so give her a like measure of torment and mourning, since in her heart she says, ‘I sit as a queen, I am no widow, and mourning I shall never see.’

**8** For this reason her plagues will come in a single day, death and mourning and famine, and she will be burned up with fire; for mighty is the Lord God who has judged her.”

**20** Rejoice over her, O heaven, and you saints and apostles and prophets, for God has given judgment for you against her!”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는가? (7절)

What ultimately led to the destruction of Babylon? (18:7)

‘바벨론’의 패망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4절, 20절)

What is the message to God’s people in the fall of Babylon? (18:4, 20)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두 가지 당부

Two requests to the Lord's people in the end times

하나님은 음행과 사치와 불의로 가득한 '바벨론'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성경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서 나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악'으로 치달고 있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겐 여전히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안에 사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세상'이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즐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길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고 기쁘게 보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고립(단절)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죄를 들 여다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God says we must resist "Babylon," which is full of fornication, luxury, and injustice. He says that there are two ways to accomplish this. The first is "to stay away from sin."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the Bible does not say "come out of Babylon," but rather "come out of their sins." The world's culture and values are moving toward "evil", but it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live by building a wall separating the world because we still have a mission to save the world. Although we are living in the world, we should not let the "world" live within us.

The second is "Rejoice in God." This does not mean "enjoy the destruction of Babylon." Rather, seeing the fall of "Babylon" and listening to their cry, we may rejoice and reaffirm how blessed and precious is the path we took. Living like "Babylon" may initially seem better and more pleasing, but it cannot be compared to the satisfaction of a person who knows the joy of the Lord.

In order for us to live up to our Christian identity in the midst of the values and culture of "Babylon", Henry Nowen advocates that we should go out day by day "to a place of solitude, not a place of isolation." We can come out of sin only when we go out to the place where we can see sin.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27

May 목 Thu

## 하객인가? 신부인가?

Guest? or Bride?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19장



새175장(통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로 가득한 장이 18장이라면, 19장은 가장 기쁜 노래로 가득한 장이라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19장에서 그 절정에 다다른다. 그런데 이처럼 계속해서 '할렐루야'(주를 찬양하라)가 흘러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게끔 때가 되었다.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어린 양의 신부(교회)가 한참 잔치를 즐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주검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새들의 잔치'가 대조적으로 펼쳐진다.

### 요한계시록 19:6-10, 17-21

**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죽으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 Reading insight

If the chapter 18 is filled with the saddest songs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n chapter 19 is the chapter full of the most joyful songs. In chapter 19, we reach the height of the Book of Revelation. But why do we keep hearing “Hallelujah (Praise our God)”? It is because Babylon is finally destroyed and God’s reign over the world begins. The “wedding of the Lamb” soon follows and, while the bride of the Lamb (Church) is enjoying the wedding supper, another form of supper takes place where the birds come and gorge on the flesh of the beast.

## Revelation 19:6–10, 17–21

- 6** Then I heard what seemed to be the voice of a great multitude, like the roar of many waters and like the sound of mighty peals of thunder, crying out, “Hallelujah! For the Lord our God the Almighty reigns.
- 7** Let us rejoice and exult and give him the glory,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 8** it was granted her to clothe herself with fine linen, bright and pure”—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 deeds of the saints.
- 9** And the angel said to me, “Write this: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nd he said to me, “These are the true words of God.”
- 10** Then I fell down at his feet to worship him, but he said to me, “You must not do that! I am a fellow servant with you and your brothers who hold to the testimony of Jesus. Worship God.”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 17** Then I saw an angel standing in the sun, and with a loud voice he called to all the birds that fly directly overhead, “Come, gather for the great supper of God,
- 18** to eat the flesh of kings, the flesh of captains, the flesh of mighty men, the flesh of horses and their riders, and the flesh of all men, both free and slave, both small and great.”
- 19** And I saw the beast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th their armies gathered to make war against him who was sitting on the horse and against his army.
- 20** And the beast was captured, and with it the false prophet who in its presence had done the signs by which he deceived those who had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those who worshiped its image. These two were thrown alive into the lake of fire that burns with sulfur.
- 21** And the rest were slain by the sword that came from the mouth of him who was sitting on the horse, and all the birds were gorged with their fles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큰 잔치를 대조해보라.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6–10절, 17–21절)

Compare the two feasts and answer: Who? What? Where? When? Why? (19:6–10, 17–21)

어떤 점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고 생각하는가? (9–10절)

Why do you think the statement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is true? (19:9–10)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CA)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택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신부 수업” Bridal Preparation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혼인 잔치에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공인 ‘신부’로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두 ‘5월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새들을 배부르게 하는 ‘죽음의 잔치’입니다. 이 두 잔치는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바벨론’(로마)이나 ‘마귀’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부가 되어 호사를 누렸고, 그렇지 않은 주의 백성들은 가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전하는 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순결함을 지켰던 주의 백성들이 ‘신부’가 되고, 순결을 잃어버린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땅에서의 “신부 수업”은 우리에게 인고(忍苦)의 시간이 아니라, 인내(忍耐)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 받은 신부”임을 잊지 말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we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wedding feast not as “guests” but as the “bride.” This is so not because we deserve such honor but because of God’s love toward us. For this reason, we must never forget that this wedding banquet is an act of God’s grace for us.

We find two very contrasting banquets in our text today. One is the “wedding banquet” of the Lamb and the other is the “death banquet” that feeds the birds. These two banquets represent the Lord’s salvation and judgment. Important to note here is that the determining factor of these two banquets do not rest with “Babylon(Rome)” or the “Devil.”

This world that we live has always followed the ways of “Babylon.” So those who followed the ways of the world became the bride of Babylon and enjoyed all that this world offers. Those who resisted the ways of the world experienced much suffering and oppression. But our text points out a clear truth: The people of God who maintained purity will become the “bride” while those who lived an adulterous life will receive judgment.

From this perspective, the time of “bridal preparation” in this world is not a time of suffering but endurance. The power of judgment is with our Lord Jesus Christ. We should never forget that we are the “brides invited to the wedding banquet of the Lamb” and faithfully prepare ourselves to meet the groom. Let’s prepare the wedding dress and the oil for the lamp. Jesus Christ, who is our groom, will soon com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28

May 금 Fri

## 성도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Coming to Life  
and Reigning  
with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20장



새180장(통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의 실체들은 '용'(12장), '짐승과 거짓 선지자'(13장), '바벨론'(17장) 순으로 소개되고 있다. 반면 이들이 멸망하는 순서는 역순이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이,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20장에서는 '용'(악의 우두머리)이 차례로 멸망한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원수인 '마귀'를 제거함으로써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

### 요한계시록 20:1-10

-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 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 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 9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 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 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 Reading insight

The entity of evil in the Book of Revelation is described as follows: “Dragon (chapter 12),”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chapter 13),” and “Babylon (chapter 17).” These entities of evil are also destroyed in the following order: Babylon in chapter 18,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in chapter 19 and finally the Dragon (the boss of the evil) in chapter 20. In chapter 20, God destroys evil forever by destroying the “Devil” and raises God’s people as rulers.

## Revelation 20:1–10

**1** Then I saw an angel coming down from heaven, holding in his hand the key to the bottomless pit and a great chain.

**2** And he seized the dragon, that ancient serpent, who is the devil and Satan, and bound him for a thousand years,

**3** and threw him into the pit, and shut it and sealed it over him, so that he might not deceive the nations any longer, until the thousand years were ended. After that he must be released for a little while.

**4** Then I saw thrones, and seated on them were those to whom the authority to judge was committed. Also I saw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beheaded for the testimony of Jesus and for the word of God, and those who had not worshiped the beast or its image and had not received its mark on their foreheads or their hands. They came to life and reigned with Christ for a thousand years.

**5** The rest of the dead did not come to life until the thousand years were ended.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

**6**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shares in the first resurrection! Over such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they will reign with him for a thousand years.

**7** And when the thousand years are ended, Satan will be released from his prison

**8** and will come out to deceive the nations that are at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Gog and Magog, to gather them for battle; their number is like the sand of the sea.

**9** And they marched up over the broad plain of the earth and surrounded the camp of the saints and the beloved city, but fire ca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d them,

**10** and the devil who had deceived them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and sulfur w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were, and they wi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본문은 ‘마귀’(용)의 마지막 운명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10절)

How is the final end of the “devil (dragon)” described in this text? (20:10)

‘성도들’(교회)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4–6절)

What happens to the “saints (the Church)?” (20:4–6)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마귀의 패배가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

The Meaning of Devil's Defeat for the Saints

마귀의 패망과 교회의 승리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이 패망하면, 다른 한쪽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용(마귀)은 망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를 ‘미래의 패망’(앞으로 망할 것이다.)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이미 패망한 존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지금도 비록 마귀가 승리하지만, 나중에는 패배할 것이다.’가 아니라, ‘마귀는 이미 싸움에서 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가 패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귀의 패망을 확신하면서 일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힘보다 마귀의 힘을 더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주님을 상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교회)의 운명은 마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위협적인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다고 할지라도 신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늘 승리할 것입니다.

The defeat of the devil and the victory of the church is like the two sides of a coin. If one side loses, the other side wins. If so, what will be the end of the devil? The answer given in our text is simple: “The dragon (devil) will perish.” Interesting to note is that the defeat of the dragon is not described as a “future defeat” in our text but as one who is “already defeated (20:1-3).” In other words, it is not “although the devil is winning now, it will be defeated later,” but “the devil has already lost the fight.” This understanding teaches us that we should be living our life today being sure of the devil’s defeat instead of waiting for the devil’s defeat to take place sometime in the unknown future.

Sometimes, we seem to be more afraid of the power of the devil than being confident in the power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we must remember that the devil cannot stand against the Lord. He is nothing more than a “paper tiger.” For this reason, the saints should never lose heart when the devil prowls around us. (If we do not lose heart, we will win.) Believe that our future and destiny as saints (church) are not in the hands of the devil but is securely placed in God’s throne.

No matter how much we may be surrounded and threatened by the forces of evil, we who are saints will surely come to life in victory and reign with Christ.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29

May 토 Sat

## 주님께 보석 같은 존재, 교회

Church: The Lord's  
Precious Jewel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21장



새235장(통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한계시록 21-2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장차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다. 거기에 있는 보석들과 높은 성곽, 그리고 열두 문은 교회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될 것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확연히 대조되는 두 도성(city)을 만나게 되는데, 마귀의 신부인 '바벨론'(큰 성)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두 도성 모두 보석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보석이 탐욕과 사치를 의미한다면, '새 예루살렘'의 보석은 영광과 존귀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이 다르다.

### 요한계시록 21:1-8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 Reading insight

Chapter 21–22 of Book of Revelation show us where God is inviting us to. God invites us to the New Jerusalem, which represents the image of the church that will be perfected in the future. The images of the jewel, the great high wall with twelve gates show how the church will be perfected according to the Lord's will. At the end of the Book of Revelation, we come across two very contrasting cities. One is the city of Babylon (big city) that is the bride of the devil and the other is the holy city of Jerusalem, which is the church that is the bride of the Lamb. Although these two cities are decorated with jewels, the jewels in the city of Babylon represent greed and luxury while the jewels in the city of New Jerusalem represent glory and honor.

## Revelation 21:1–8

**1**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 sea was no more.

**2** And I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3**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saying, “Behold, the dwelling place of God is with man. He will dwell with them, and they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s their God.

**4**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death shall be no more, neither shall there be mourning, nor crying, nor pain anymore, for the former things have passed away.”

**5** And he who was seated on the throne said,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Also he said, “Write this down, for these words are trustworthy and true.”

**6** And he said to me, “It i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To the thirsty I will give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without payment.

**7** The one who conquers will have this heritage,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8** But as for the cowardly, the faithless, the detestable, as for murderers, the sexually immoral, sorcerers, idolaters, and all liars, their portion will be in the lake that burns with fire and sulfur, which is the second deat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본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인가? (3절)

What is the essence of God's kingdom (dwelling) as described in our text? (21:3)

본문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들을 열거하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8절)

According to our text, “they will be consigned to the fiery lake of burning sulfur.” Who are “they”? (21:8)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드림교회, 정영희(CA)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What the Church Now Must Do

본문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9-27절이 전하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찬란함' 그 자체입니다. 다양한 보석들의 이미지를 통해 교회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21장에서 전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환경의 문제'(보석이 지천에 깔려 있고, 엄청 큰 규모를 자랑하는)이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주님과의 교제가 있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은 죽어야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참고, 기다려 주시며, 때론 설득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온유하심과 인내를 이용하려 들지 않고, 속히 그분 앞에 나가 머리를 숙이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는 바벨론처럼 '큰 것'(웅장함과 화려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과 같이 '질적'(구별됨, 깊은 교제)으로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 이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Our text today tells us about our final destination. We are told that there is an end to our life and also that the end is going to be glorious beyond description. Surely, the image of Jerusalem that is described in verses 9-27 is the brilliance itself. Through the images of beautiful jewels, the write shows how precious the church is to the Lord.

The heaven and hell that is described in chapter 21 is determined by God's presence or absence. Heaven is where the Lord is present and hell is where the Lord is not present. For this reason, anyone who lives in the presence of the Lord can enjoy heaven wherever that person may be. In this understanding, God's kingdom or dwelling is not about an "environment" (how big or how ostentatious) but rather it is about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 promise of the final end is experienced not only in death but also in life. God never forces people to where God wants them to be. Instead, God endures, waits and persuades. If so, then we must stop testing God's mercy and patience but go to God and submit ourselves to God. The church doesn't need to seek to be big like Babylon but rather seek to be the New Jerusalem by valuing holiness and relationships. Seeking to live a life that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world, that is what the church must truly seek.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30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제니퍼 이야기

김영래 목사 (콘트라코스타 UMC, CA)

요한계시록 14장은 일곱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첫 번째가 1-5절에 묘사된 시온 산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환상입니다. 3절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십사만 사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닌 완전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총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하늘나라 노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부르게 되는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의 노래,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 전 오후에 교회 주차장과 정원을 걸으며 산책을 하는데 어떤 젊은 백인 여자가 다가와서 자기가 한국어로 된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편지를 읽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인 여자는 자기 이름이 제니퍼이고 자기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버지와 힘든 관계 가운데 어렵게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집을 떠나셨고 그 후에 모든 접촉을 끊으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한국어로 된 편지가 들어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동네에 있는 한국교회인 우



리 교회를 방문해서 누군가 만나면 편지를 읽어 달라고 부탁하려고 들어왔는데 마침 내가 있어서 부탁을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어머니가 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제니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사람처럼 네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해서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주렴.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야. 사랑한다! 제니퍼 사랑한다...”는 어머니의 딸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고 영어로 번역을 해주자 제니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Mom I am sorry! I love you too! I miss you! Mom, I love you too...”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툭 툭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제니퍼를 보면서 무언가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의 심정과 또한 어머니의 편지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감격하고,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고백하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강연을 마치고 떠나려 할 때, 기자가 “교수님께서 수십 년간의 성경과 신학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학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라고 대답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감격과 치유와 회복과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음으로써, 사랑과 감격과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 하나님과 이웃들과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참된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 31

May 월 Mon

##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The sound of the Lord calling us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한계시록 Revelation 22장



새528장(통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다.(1장에서 시작된 세 환상이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신비를 '생명수의 강'으로 묘사한다. 특별히 마지막 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정원'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에덴동산'을 연상케 한다. 하나님 나라가 곧 '에덴동산'의 온전한 회복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드라마는 성도들이 '생명수의 강'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 요한계시록 22:6-17

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 Reading insight

We have finally arrived at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of Revelation. (The three visions from chapter one are finally fulfilled here.) In chapter 22, the mystery of the New Jerusalem is described with the image of “the river of life.” The description of a garden in this chapter reminds us of the Garden of Eden that God had first made. By doing so, the writer shows that God’s kingdom is the achieving of the complete redemption of the Garden of Eden. This grand drama ends with the promise that all the saints will reign forever and ever by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with God and the Lamb.

## Revelation 22:6-17

**6** And he said to me, “These words are trustworthy and true. And the Lord, the God of the spirits of the prophets, has sent his angel to show his servants what must soon take place.”

**7** “And behold, I am coming soon. Blessed is the one who keeps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8** I, John, am the one who heard and saw these things. And when I heard and saw them, I fell down to worship at the feet of the angel who showed them to me,

**9** but he said to me, “You must not do that! I am a fellow servant with you and your brothers the prophets, and with those who keep the words of this book. Worship God.”

**10** And he said to me, “Do not seal up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for the time is near.

**11** Let the evildoer still do evil, and the filthy still be filthy, and the righteous still do right, and the holy still be holy.”

**12** “Behold, I am coming soon, bringing my recompense with me, to repay everyone for what he has done.

**13**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14**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so that they may have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and that they may enter the city by the gates.

**15** Outside are the dogs and sorcerers and the sexually immoral and murderers and idolaters, and everyone who loves and practices falsehood.

**16** “I, Jesus, have sent my angel to testify to you about these things for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descendant of David, the bright morning star.”

**17**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desir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pric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천사들이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7절, 14절)

Who do the angels say are “blessed”? How do you understand the meaning of what they said? (22:7,14)

요한이 전한 바에 따르면, ‘생명수’를 받아 마실 사람들은 누구인가? (17절)

According to John, who will drink the “water of life”? (22:17)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CA)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생명수”를 받을 자

Those who will receive the Water of Life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생명’입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에덴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저주가 선포되었지만, 새로운 낙원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고” 영원히 생명이 공급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그는 지금까지 전한 이야기들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전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지라.”(6절) 그는 또 이러한 일들이 속히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권합니다. ‘거룩함’의 실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One word that we must pay special attention to in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of Revelation is the word “life.”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The Tree of Life,” and “the Leaves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From this observation, we can learn that the Kingdom of God is the kingdom of “life.” While curse was declared in the first “Garden of Eden,” in the new garden, there are no more curses and life is provided.

John emphasizes three things in our text for today. First, he says that all that he shared up to this point is entirely true. So he says that the angel said to him, “These words are trustworthy and true.” He also says that all the things he shared will soon come to pass. So he is urging people to be prepared. He says that we must never worship anything but only God. This is where the practice of holiness begins.

Those who “keep the words of the scroll” (those who keep the Word) and those who “wash their robe” (those who repent) are the ones who are blessed. These people will “have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and “may go through the gates into the city,” but those who don’t will remain outside the city. The Lord calls us to come, even today. Those who hear the Lord, those who are thirsty, and those who sincerely wish will receive the free gift of the water of lif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1년 5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나는 어떤 '칭지기' 입니까? | 베드로전서 4:7-11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한이 보내는 편지) | 요한일서 2:18-29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우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 요한계시록 5:1-5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심판'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 | 요한계시록 6:7-8, 12-17
-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오늘도 "두 증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 요한계시록 11:1-13

## 나는 어떤 ‘청지기’ 입니까?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 ① 여는 질문

어릴 적(또는 젊은 시절) 사진을 하나씩 가져와 펼쳐 두고 누구인지 서로 맞춰보라. 누가 제일 많이 변했는가? 또 누가 가장 그대로인가?

### ② 본문 이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같이 살라.”(10절)고 전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이란 뜻으로 본문에서는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주인’(Lord)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고, ‘이런 청지기가 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7절)해야 합니다. ‘근신하다’는 ‘절제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절제와 분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 주시지만 하면 되는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같은 분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나 채우고, ‘복’이나 비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8절)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즉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앞 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

이 식어 지리라.”(마 24:12) ‘청지기’로 세움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있는 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10절) 봉사해야 합니다. ‘각각’이란 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란 나를 희생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재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11절)라고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 3 말씀 속으로

1.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선한 청지기가 돼라’고 당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2.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다?

### 4 삶 속으로

1. 오늘 하루 맺은 여러 인간관계들 속에서 ‘사랑’과 ‘원망’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 암송 구절 - 뱀전 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 6 자녀와 나눔

누군가를 도울 때, 내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 (요한이 보내는 편지)



새336장(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351장(통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 ① 여는 질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종종 언론매체를 통해 이단들의 활약상(?)을 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교파 또는 단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② 본문 이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적그리스도', 즉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성도)은 "기름 부음(성령)을 받은 자"(20절)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왕, 제사장, 선지자)이심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18-23절)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도 부정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는 또 '복음'을 제대로 알아 '적그리스도'의 방해를 이겨내며,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듣고 배운 것을 바로 새겨야 합니다. (24-27절)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 11:25-26) 이러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진리(말씀)를 떠나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모든 의로움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28-29절) 요한은 우리가 듣고 배운 것에 거하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담대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께 인정을 받고,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 ③ 말씀 속으로

1. 요한이 전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 28절)
2.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문에서 요한이 당부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 ④ 삶 속으로

1.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맞서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27절)고 말합니다. 이 말이 내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 ⑤ 암송 구절 - 요일 2:28

자녀들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 ⑥ 자녀와 나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된다면,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 ‘우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새365장(통484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새361장(통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 ① 여는 질문

마지막으로(또는 최근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② 본문 이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보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던 요한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sealed)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오른손”에 있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주권’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뽁뽁하게)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이 ‘두루마리’에는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겔 2:9-10) 이는 다음 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봉인, 나팔, 대접)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심판과 재앙’을 전하고는 있지만, 신자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브리엘’로 추정됨)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2절) 사실 이 질문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와도 같은 질문입니다. 봉인을 해제한다는 것은 곧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해결할 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되지 않으면, 마귀와 대적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낙심하여, 큰 소리로 읊니다. (4절) 하지만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

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기는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부조리한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하고,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5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위로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이 요한을 찾아와 "울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울지 말라."(울음을 그치라)는 말은 단순히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마라.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일곱 개의 봉인'으로 견고하게 봉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봉인들을 하나씩 여시면, 악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의인들은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3 말씀 속으로

1. 본문에서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
2. 하나님은 슬퍼하는 요한을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5절)

### 4 삶 속으로

1. 문제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무기는 '눈물'이었다. 요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2.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마침내 봉인을 열어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예수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 암송 구절 - 계 5:5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부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 6 자녀와 나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관자'(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가 되신다는 것을 믿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 ‘심판’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



새338장(통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359장(통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 ① 여는 질문

‘재앙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② 본문 이해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를 여실 때마다 재앙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일곱 봉인-일곱 나팔-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 재앙’ 이야기는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부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절경은 놓쳐버리고 마당만 밟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왜 일곱(7)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에는 ‘7’이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나, 일곱 개의 영, 일곱 개의 눈, 일곱 개의 천사, 심지어 심판을 받을 사람도 일곱 부류입니다.(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이는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인데요. ‘7’은 완전수로, ‘완전한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부’(예외 없이, 모두)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15절)

본문에 나오는 재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처음 네 가지 재앙이 전쟁과 내분, 기근과 사망을 상징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어떤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심판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봉인 재앙’에서는 “사분의 일”(8절)이 심판을 받지만, ‘나팔 재앙’에서는 “삼분의 일”(8-9장)이, ‘대접 심판’(16장)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방(?)에 끝내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와중에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



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재앙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15-16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예외 없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됩시다.

### 3 말씀 속으로

1. '일곱 봉인' 심판에서 "사분의 일"만 멸하시고, 나머지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8절)  
※ 참고: 요한계시록 8-9장과 16장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2. 본문에서 심판을 받게 될 이들은 누구입니까? 일곱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15-16절)

### 4 삶 속으로

1.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2.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내용'(어떤 벌을 받느냐)보다 '심판의 대상'(누가 심판을 받느냐)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 암송 구절 -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6 자녀와 나눔

어릴 적에 (또는 최근에) 부모님께 훈이 난 적이 있을 텐데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럼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오늘도 “두 증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새600장(통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새210장(통245자) 시온성과 같은 교회

## ① 여는 질문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② 본문 이해

요한계시록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된 두 번째 이야기로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증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고난받고, 숨을 거두신 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을 따라가고 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모두 ‘교회(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둘’(2)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거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 숫자입니다. (신 19:15, 마 18:16, 딤후 5:19) 따라서 1장의 “일곱 촛대”가 모든 교회를 의미했다면, 11장의 “두 촛대”는 증인된 교회,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은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5-6절) 마귀의 권세에 맞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통해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행 1:8) 이 ‘능력’ 없이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던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7-10절) 하지만 이는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으로 남은 자들 중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흘 반 만에 그들을 다시 살리셨고, (11-12절) 결국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증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그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사용했으며, 그 ‘능력’으로 기꺼이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힘을 과시하는 대신 ‘자기희생’을 위해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구해야 할 ‘능력’은 이런 ‘자기희생의 능력’ 아닐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두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 3 말씀 속으로

1. ‘심판의 한가운데서(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다?  
(3절)
2. “두 증인”이 걸었던 길은 어땠으며, 그들은 이 길을 어떻게 헤쳐 나갔나요?(6-13절)

### 4 삶 속으로

1.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은 본문에서 “두 증인”이 보여준 ‘능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 본문 이해와 질문(나눔)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5 암송 구절 - 뱀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 6 자녀와 나눔

‘증인’(witness)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이들은 누구이고,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 What kind of steward am I?

### ① Opening Question

Bring pictures from your childhood (or youth), share them, and try to match the pictures to the adult. Who has changed the most? Who looks the same?


### ②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 Christians living in the end times, Peter tells us to "live as faithful stewards." (4:10) "Steward" means a person in charge of the master's job, and in the text it means "messenger" or a person who runs errands. According to the Bible, all Christians who confess Jesus as "Lord" are "stewards in charge of the Lord's work". Therefore, Peter is not saying "you must be a steward," but is asking you "to be a certain kind of steward."

In order to become a "good and faithful steward," you must first "be alert and of sober mind so that you may pray." (4:7) "Sober" means "moderate" and "discerning". The first thing that Christians living in the end times need is to pray for temperance and discernment. This is because only those who pray may resist the devil who tries to devour the believers "like a roaring lion" and can discern the will of God.

Who is God in our prayers? Is "God" in our prayers like "Goblin's Bat" or "Aladdin's Magic Lamp," someone who just gives whatever I pray for? We must be careful not to let our prayers be the means to satisfy our needs or the tools to receive blessings.

Secondly, Peter says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4:8) The phrase "above all" means "before anything else," or a priority. As God's stewards, the first priority is to "love". Considering the words in the previous verse, "prayer" is important when it comes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love" is important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s with people. About the end times, Jesus said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Matthew 24:12) As "stewards", we must always check to see if there is a love that "covers a multitude of sins" within us. Jesus loved his people "to the end." Let's not forget that we are so loved.



Finally, “faithful stewards” must serve “as each has been given a gift.” (4:10) From the word “each” we can see that each gift God has given us is different. The purpose of God’s giving us “gifts” is not to prop me up, but to support “church”. Therefore, we must do our best in building up the church.

“Volunteering” means serving others by sacrificing yourself. So, there is a limit to serving others with my own ability and skills. The Bible tells us to serve the community with the gifts given to us. It is said that “God is glorified” when we serve with the power that God provides. (4:11) Let’s become a “faithful steward” who serves the community with the gifts given to each one of us.

### 3 Into the Word

1. Why did Peter ask believers to “become faithful stewards?” (Think about the meaning of the word “steward”.)
2. What were the three things Peter emphasized were needed to become a “faithful steward?”

### 4 Into our Life

1. Which of the two, “love” or “resentment”, carries more weight in the various relationships you have today? Why is that?
2. What do you think is the “gift” that God has given you?

### 5 Memory Verse - 1 Peter 4:7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therefore be self-controlled and sober-minded for the sake of your prayers.”

###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 am sorry if things don’t work out as you hope. Your mom and dad may experience the same situations. What do you do at such a time? Do you easily give up? Or…?

# To the Saints Living in the End Times

## (Letter from John)

### 1 Opening Question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I often see the activities of heretics through the media. What are some of the "heretics" (denominational or groups) you know?

###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words in the text teach the saints how to live in the end times. John tells us that as a characteristic of the end times, there will be many "antichrists", that is, many who deceive people with lies in order to deny and oppose Christ. In addition, those who became children of God (saints) are "ones who received the anointing (the Holy Spirit)" (2:20) having the "right knowledge" and "right faith" about Christ. Therefore, they need to spread the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king, priest, prophet). In the text, John asks for three things.

First, believers living in the end times should be wary of the "antichrist". (2:18-23) The saints must obey the word, "Do not love the world, but love your brothers and sisters." However, there are "antichrists" who reject this. They not only deny that Jesus is the "Christ", they also deny the Father and the Son. Jesus' crucifixion and salvation are also denied. Their purpose is only to turn the saints away from the right word of faith and truth. Therefore, believers must be wary of the "antichrist".

The health of the church lies in knowing and believing in who Jesus is. Saints must clearly confes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Saints also need to properly know the "gospel" and overcome interference of the "antichrist". For this, they must always watch and pray. Second, believers living in the end times should immediately take to heart what they heard and learned. (2:24-27) John worked hard to teach the gospel of Christ. We can enjoy eternal life only through "Jesus who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John 11:25-26) We, who have received this life as a gift, must not defile ourselves by missing the truth (the Word) on this earth where we live as strangers for a while.



The church was built on the Word of the gospel from the beginning. For this, the Holy Spirit also leads us to the truth and teaches us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When you know who God is like, you will realize that all righteousness comes from Him.

Finally, believers living in the end times must abide in Christ. (2:28–29) John says that we cannot do righteousness unless we abide in what we have heard and learned. In order to boldly welcome Jesus, who will come again, we must abide in Christ. “Antichrist” destroys life by bringing believers out of the truth of the Gospel and Chris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well in Jesus.

The church must live in the Lord with the “right knowledge” of the Gospel and “right faith” in Jesus and must live according to His will. Then, on the day the Lord comes again, the church will be recognized by Him and will be praised and rewarded for its hard work and patience.

### 3 Into the Word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nd times according to John? (2:18, 28)
2. What were the three things John asked of the Saints living in the end times?

### 4 Into our Life

1. What can we do now to confront the things that deceive us?
2. John says, “No one needs to teach you.” (2:27) What does this mean to you?

### 5 Memory Verse - 1 John 2:28

“At the same time, it is a new commandment that I am writing to you, which is true in him and in you, because the darkness is passing away and the true light is already shining.”

###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f we stand before Jesus today, can we stand confidently without being ashamed?

## God who opens the way to the “weepers”

### ① Opening Questi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pt because of your heartache? What was the reason?

### ②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text begins with the words “Then I saw a scroll.” The first thing that came into the eyes of John, who was anxiously waiting for the Lord, was a “sealed scroll” in the “right hand of the One who sat on the thron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croll was in the “right hand.” In the Bible, “right hand” means “sovereignty” and “power”. Therefore, the fact that there was a “scroll” “in the right hand of the one who sat on the throne” emphasizes that God is the ruler of history, given the fact that future events are recorded in this scroll.

There was writing o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scroll. It was recorded in that much detail. According to the book of Ezekiel, this scroll contained the contents of “judgment and plagues” (Ezek 2:9–10), which is also confirmed in the story of “seven plagues” (seals, trumpets, and bowls) in the next chapter. Can the book of Revelation be a “book of judgment?” It's not like that. The book of Revelation conveys “judgment and disaster,” but it is also a book that tells believers of “victory” and “completion of salvation.”

At that time, “a mighty angel” (presumed to be “Gabriel”) asks John, “Who is worthy to break the seals on this scroll and open it?” (5:2) Actually, this question is the same question as “Who is the designer of history?” This is because releasing the seal means executing the “judgment” recorded in the “scroll”. But the problem is, we do not see anyone who is worthy to handle it. Unless the seal of the “scroll” is taken out, the devil and enemies will continue to persecute Christians, and both “salvation” and “victory” of God will be in vain.

John is discouraged by this and weeps bitterly. (5:4) However, the God John experienced was the one who came to those who shed tears. The weapon of the early church members who lost their loved ones through such intense persecution was “tears”. God opens





the way for the “weepers” in the reality where they had no option but to weep. We also need those “tears”. We too must weep for an absurd world and weep in front of the reality of Christianity being insulted.

In verse 5 we see John being comforted. A man comes to John and gives a word of comfort saying, “Do not weep.” “Don’t weep” (stop crying) does not only mean “don’t be sad.” It also conveys the meaning of “Don’t worry, there is an answer.” The person who will unseal the “scroll” appeared, and he was “Jesus”. It is firmly sealed with “seven seals,” but if Jesus opens these seals one by one, the wicked will eventually perish and the righteous will finally triumph.

### 3 Into the Word

1. Why did John weep bitterly? (5:1-4)
2. How did God comfort John when he was weeping? (5:5)

### 4 Into our Life

1. The only weapon for the believers of the early church who had to rise above hardship and pain was “tears”. How much are you crying before God these days?
2.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tory of “the victorious Jesus” (who will finally open the seal to save the righteous and judge the wicked) conveyed to us today?

### 5 Memory Verse - Revelation 5:5

“Weep no more; behol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has conquered, so that he can open the scroll and its seven seals.”

###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Do you believe that God is still our “Lord” (the one who rules everything) today? What do you usually do when there is something you cannot solve on your own?

# The amazing hidden secret behind the judgement

## 1 Opening Question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about plagues and judgments? Why is that?


##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From Revelation 6, we notice that the calamity increases in intensity every time Jesus opens the sealed scroll. However, if you look a little closer, you will find a message of hope for God's people in this story of wrath and judgment that introduced "Seven Seals–Seven Trumpets–Seven Bowls." The story of "Seven Plagues" is recorded from chapters 6 to 16, and it occupies the heart of the book of Revelation. Therefore, if you cannot read the message of God contained in it, you will miss the most important insight.

In order to help understand the text, it is necessary to first look at "why seven?" In fact, there are a lot of "7's"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re are seven churches in Asia Minor, seven spirits, seven eyes, seven angels, and even those who are to be judged. (It can also be found in the Gospel of John, John 1, 2, and 3.) This is due to the symbolism of the number "7". "7" is a perfect number, meaning "perfect God." However, it was also used in the meaning of "all" (everything). (6:15)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exactly what the plagues in the text specifically mean. The first four plagues symbolize war and infighting, famine and death. However,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episodes of plagues." It is that the "impact of plagues" is different. In the "Seal Plague," "a fourth of the earth" were killed (6:8) But in "Trumpet Plague" "a third" (chapters 8-9), and in "The Seven Bowls" (chapter 16), "all" creation was judged. Why does God dare to do this? God can exterminate everything all at once. God is still giving opportunities in the midst of such judgment. Therefore, we must not forget that the saints living in the end times still have the opportunity of salvation and have a mission to preach the gospel.

There is one more thing we should not miss in Revelation's "Tales of Judgment and Di-



saster”. It is about people who are under judgment. According to the text, seven classes of people are plagued. (6:15–16) All of the people whether high or low class and whether the haves or the have-nots will be judged by God in the last days without exception. That’s right. In the last days we will “all” stand before His judgment seat. The important thing is “how will you stack up in front of Him.” God is waiting for us to repent again today. Instead of living on your own, let’s become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heart of the Lord.

### 3 Into the Word

1. In the “seven seals” judgment, what is the reason for destroying only “a quarter” and leaving the rest? (6:7–8)

※ Note: Please compare Revelation 8–9 with Chapter 16.

2. Who will be judged in this text? Find seven categories of people. (6:15–16)

### 4 Into our Life

1. Why is God patiently waiting for you today? (Let’s share our thoughts.)

2. What do you think about Christians who say that “who is judged” is more important than “what punishment?”

### 5 Memory Verse - 1 John 1: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n the past, you may have been scolded by your parents. What was the reason? Can you imagine how your parents felt at that time?

# God is looking for “The Two Witnesses” today

## 1 Opening Question

What do you think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or the church’s ministry) in this era? Share your thoughts.


##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Revelation 11 is the second story inserted between “the sixth trumpet plague” and “the seventh trumpet plague” and describes “temple surveying” and “two witnesses.” John tells us that the “two witnesses” are following the “path” that Jesus once walked (suffered, died, resurrected, and ascended into heaven).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o preach Jesus but also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ollowing the path He has taken.

In the text, “two witnesses,” “two olive trees,” and “two candlesticks” all mean “church (community).” In the Bible, “two” is the number of witnesses. This is the minimum number that can validate “the reliability and certainty of the evidence.” (Deut. 19:15, Matt. 18:16, 1 Tim. 5:19) Therefore, if the “seven candlesticks” in chapter 1 meant all churches, then the “two candlesticks” in chapter 11 represents the validated church. That is, the church that was commissioned to preach the gospel.

In the end times, the mission of preaching the gospel must be fulfilled not with “knowledge”, but with “power from heaven.” (11:5-6) This is because it is a task to face the power of the devil. Acts 2 also reports that whe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 disciples, they were able to fulfill their mission as “witnesses”. To become a “witness”, you must empower yourself with the Holy Spirit. (Acts 1:8) Without this “power”, we cannot handle the work the Lord has entrusted to us.

Unfortunately, the “Two Witnesses” who were on their mission with “power” were killed. (11:7-10) But it never means “defeat”. With the death of the “Two Witnesses,” the survivors were “terrified and gave glory to the God of heaven.” God raised them again after three and a half days and eventually declared victory. (11:11-12)



What the “Two Witnesses” showed us was “the power of the cross.” They did not abuse the “power” that was given to them and used that “power” only “to testify the gospel.” With that “power”, they willingly walked the path of suffering and martyrdom. Instead of revealing themselves and showing off their strength, they used their “power” for “self-sacrifice.” Isn’t the “power of self-sacrifice” what the church needs to seek in the end times? God is still looking for “Two Witnesses” today to let people know that there is still an opportunity. He is looking for a church that can handle this with “the power of the cross.” Let us become a church that is used that way. Because the Lord has triumphed, we will eventually win.

### 3 Into the Word

1. In the midst of judgment (prior to the final judgment), what was God’s mission for the “two witnesses”? (11:3)
2. What was the path the “Two Witnesses” walked and how did they navigate this path? (11:6-13)

### 4 Into our Life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rength” that we seek from the “strength” shown by the “two witnesses” in the text?
2. Through understanding the text and sharing, what are some things you have newly realized today?

### 5 Memory Verse - 2 Peter 1:10

“Therefore, brothers, be all the more diligent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for if you practice these qualities you will never fall.”

###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kind of person is a “witness”? Who are they and what are their roles?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 **3022170**

Country : **Mozambique**

Serving At : **Cambine Mission in the South Mozambique  
Annual Conference**

Home Country : **DR Congo, Africa**

Spouse : **Florence Kaying**

*Nday, John*

John Nday is a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as agricultural coordinator at Cambine Mission in the South Mozambique Annual Conference. His wife, Florence Kaying, is also a missionary there. He was commissioned in May 2016.

Cambine Mission is sometimes described as a “mixture of awe and ashes.” Ravaged by civil war, the facility is rising from the ashes and now has more than 2,000 students enrolled in its several schools. It also has a hospital/clinic, a theological seminary, and an orphanage. The Cambine property was the gift of a tribal chief to Methodists looking for a mission site in 1890. The chief made just one stipulation in the form of a question: “Do you come in peace?”

The mission has land used for crops and animal husbandry to feed the students and orphans. Crops include pineapples, cassava, maize, and many vegetables; animals raised include pigs, chickens, ducks, goats, rabbits and cows. John oversees this work.

John is from Kamina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where he is a member of the Paroisse Ville United Methodist

Church. He holds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in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from Africa University, the United Methodist-related institution in Zimbabwe. He also holds a certificate in sustainable agriculture from the Asian Rural Institute, a Global Ministries mission partner in Japan.

He has worked professionally in food security programs, including those of the 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 (UMCOR). From July 2011 to July 2012 he managed the mosquito nets distribution of Imagine No Malaria in Kamina City and its surroundings. The nets project was a joint effort of UMCOR, the North Katanga Annual Conference, the Kamina (public) Health Zone, and the Global Fund.

John was born into the household of a poor pastor and was separated from his family from age 12, because there was no school in the place to which his father was appointed. He remained in Kalemie. Lonely and insecure, he found comfort in the love of God and his church and determined to give value to his life.

After secondary school, he made his way to Africa University in Mutare, Zimbabwe with little prospect of being able to afford to enroll. He eventually qualified for a scholarship and also received assistance from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His good fortune at Africa University strengthened him in faith and the realization “that God exists and acts through people.”

Back in North Katanga, he found work as manager of a church-related farm that provided food to an orphanage. He also engaged in water and sanitation projects. In this work he gained experience that equipped him for his placement at Cambine.

John understands his mission call as that of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Loving and supporting such persons he sees as the “true worship” of God. He wants to promote more love in the world.

John and Florence have three young children, James, Yan, and John.

**Contact Info : [jnday@umcmmission.org](mailto:jnday@umcmmission.org)**

#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김영봉 목사 (와싱턴 사권의교회, VA)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문장은 한국교회 안에 널리 퍼져있는 기도 신학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일견 힘차 보이는 이 구호는 실상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기도의 본질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무리 진부하게 들려도 진리는 진리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내가 참되게 변화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성숙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사권의기도, 34쪽)

우리의 자아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아를 초월해 참된 ‘나’를 찾아야 한다. 거짓 자아를 초월하고 참된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나의 말은 대개 거짓 자아에서 나오므로 아무리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침묵할 때 나의 자





아는 활동을 멈추고 약화된다. 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지어진다. 이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보면 무척 어렵다. 소위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육신의 귀로 들은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육신의 청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한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그분의 말씀도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깨달음으로 온다. 마음의 청력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앉아 우리의 영을 집중시키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발견한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는 이러한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이다.

나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간조(干潮) 현상’을 경험하곤 한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동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많은 생각과 관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각과 관심들이 밀물처럼 밀려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 마음은 깊은 평안에 거하게 되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는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며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이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른 기도로써 내가 변화되면 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 역할을 한다. 가장 맑은 거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청정한 영

성(시 92:14)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거울 역할을 한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도록 해준다. 예수님은 이를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6) 혹은 ‘등경 위에서 비추는 등불(마 5:15)로 비유하셨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태도를 책망하셨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3)”고 하셨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을 선행이라고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잊으라는 뜻이다.

인용된 말씀은 선행이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숨기려 한 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그 진실이 알려지게 되어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간파하셨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요 3:19-21).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때 그분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박해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의 삶의 진실이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을 제거해 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정을 영원히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분은 결국 이 세상을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변화시킨 사람이 되셨다.

이러한 일들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진정한 변화는 굳이 확산시키려 하지 않아도 결국 전염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 자신이 변화하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대로 있는 한,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권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권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읽다4

## 광야에서 가나안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진희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는 오자마자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가뭄을 만난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첫 번째로 겪은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심한 기근이 닥쳤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오는가? 그렇다. 성경에 기근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알고 있는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어떻게 가나안에 기근이 들 수 있단 말인가? 기근이 들어도 이방 땅인 이집트에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집트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마다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가나안의 절반은 광야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다. 느보산에서 올라가면 바로 아래로 사해가 보이고 요단강이 흐른다. 그 건너편에는 여리고가 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아랫자락에

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길은 다 광야다. 모세의 눈 속에 들어온 가나안은 거의 다 암갈색 광야였다. 그의 앞에 펼쳐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유대 광야였다. 푸른색이 아니라 암갈색 광야였다.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와 다를 것이 없는 광야였다.

가나안에는 등뼈처럼 중앙 산악 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브온 베텔 실로도 예루살렘 북쪽 중앙 산악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해발 750미터에서 850미터 정도 되는 산꼭대기에 이런 도시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귀하다. 그런데 비가 와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헤브론 같은 곳에는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 내려가 버리고 만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홍수가 난다. 아니 광야에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다고 홍수가 날까? 하늘에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에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유대 광야나 네게브 광야로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광야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물들이 밀려와 홍수가 나는 것이다.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이다.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다.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기 위해 아니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야라고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1년 강수량이 200mm 이하가 되면 농사를 질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이런 광야에도 온갖 생물들이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들도 살아간다.

이렇게 목마른 광야에 겨울에 빗물이 물밀듯이 밀려와 홍수를 내게 하니 광야로서는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는 택도 없이 부족한데, 생각지도 않게 엉뚱한 데서(?) 홍수처럼 물이 밀려 내려오니, 광야가 어찌 기뻐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

님은 광야에 비를 많이 내려 주시지 않는다. 그 대신 광야를 긍휼히 여기서 그 광야에 다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신다. 중앙 산악 지대에 내린 비를 모두 이 광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려 다른 곳에 내린 비를 광야로 흘러가게 하신다.

중앙 산악 지대에 내린 비가 광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베두인들은 그 물을 끌어서 웅덩이를 가득 채운다. 이런 웅덩이를 많이 갖고 있는 목자가 좋은 목자이다. 그 목자의 양들은 여름 내내 광야에 살면서도 물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광야에도 나무가 자란다. 주로 와디 주변에서 자란다. 왜냐하면 그 와디로 1년에 몇 번이라도 물이 흘러가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시냇가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비뿐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물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광야로 흘러내려온 물은 광야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간다. 네게브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땅속 깊은 곳에는 상당한 양의 물들이 있다고 한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헤브론 같은 산악지대에는 샘이나 우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는 샘이 곳곳에 있다. 오아시스도 있다. 폭포도 있다. 광야에 이런 샘이나 폭포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스며들어 생긴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온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생긴 것이다. 이런 샘들이 여기 저기 숨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유목민들이 양을 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광야를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흘러

내려오는 빗물인 것 같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에 비를 내려 주셨는데, 그 비 때문에 엉뚱하게도(?) 광야가 살아나는 것이다. 축복은 예루살렘에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예루살렘은 지반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비/축복을 내려 주셔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 흘러가버리고 만다.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것이다. 반면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대신 다른 곳에서 물이 흘러온다. 축복이 흘러 들어온다. 그 축복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간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가 사는 것이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아도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풍족히 내려 주셔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 안으로 스며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다 흘러가버리고 만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 내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가게 하신다. 우리 안에 은혜와 축복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광야에 살아도 우리는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가나안에 살아도 광야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 살아도 가나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지금 가나안에서 광야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뉴노말시대, 다시 배우는 소그룹 2

#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속회(소그룹)

박동찬 목사 (일산 광림교회)





### 속회는 교회의 본질회복 운동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속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건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주의’는 무엇일까요?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간에 일어났던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648) 이후 회복의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가 늘 그렇듯 격전지였던 17세기 후반의 독일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대부분 경작지는 황무지로 변했고 전염병과 기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도덕적인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참한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회복에 힘써야 하는 루터교의 흐름은 신학적인 사변 - 즉 교리 논쟁과 생생한 삶의 경험 대신 논리정연한 관념만 늘어놓는 사변적인 설교,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갱신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속회는 교회의 갱신과 본질을 추구했던 이런 경건주의의 흐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속회는 단순히 성도 관리나 성경공부의 모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속회(소그룹)의 목적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27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

### 믿음 위에 바로 선 지도자가 필요

30년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교회 본질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 탄생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나 18세기 영국 사회의 타락 속에서 성도의 성화를 이루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시작된 감리교 운동의 기반단위 속회는 믿음의 지도자들의 헌신과 열정 속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스페너와 프랑케, 진젠도르프와 웨슬리입니다.

스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는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제도적인 교회의 틀 안에서 작은 경건 모임(Collegium Pietatis)을 시작하여 30년 전쟁 이후의 타락했던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비제도적인 작은 성경공부 모임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전체를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교회 안의 소그룹 운동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는 스페너의 뒤를 이어 경건주의 운동의 방향을 이론화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전 독일에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프랑케는 자신이 헬러어 및 고대 근동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할레(Halle) 대학교를 중심으로 경건주의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특별히 경건주의 운동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경건주의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난과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있던 소외된 대중들에게 교육과 자선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1695년 이후 귀족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대학수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라틴어 학교 등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1695년 가을, 4명의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도 창설하였고, 더 나아가 가난한 과부들을 위한 보금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서점, 화학 실험실, 도서관, 자연과학 박물관, 세탁소, 농장, 제과점, 양조장, 병원들을 설립한 스페너는 경건소모임 자체로는 활기있는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의 후계자 프랑케를 통하여 사회적인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케를 통한 사회적 영역의 경건주의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진젠도르프 백작(Nichola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을 중심으로 한 헤른후트(Herrnhut)형제단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헤른후트 형제단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제도적인 교회의 허락 하에 교회와 공존했던 작은 교회로서 소규모 공동체 '밴드(Band)'와 '콰이어(Choir)' 체제를 통하여 이중 삼중의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했습니다. 헤른후트 형제단은 진젠도르프 사후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를 중심으로 하는 감리교 신도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감리교 신도회는 루터교회 안으로 편입되지 못한 채 존재했던 헤른후트 형제단과 달리 영국국교회라는 제도적인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소규모 공동체

였습니다. 조직체계에서도 감리교 신도회는 정기적인 모임으로 공동체성을 유지하였고, 상호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속회, 밴드와 같은 소그룹 조직을 통해 “복음전파와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고 갱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감리교회의 출발은 종교개혁운동(Reformation Movement)이기보다는 영국 성공회 안에서 일으킨 종교갱신운동(Renewal Movement)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30년 전쟁 이후 스페너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 회복과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였고, 그의 제자 프랑케를 통해 사회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른후트 형제단을 거쳐 마침내 웨슬리에 이르러 ‘교회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속회(소그룹)는 경건주의 흐름 속에서 스페너가 강조했던 내적 신앙의 경건과 프랑케가 추구했던 실천적인 경건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성숙의 과정들이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의 속회(소그룹)도 장을 비롯한 속회(소그룹) 지도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요청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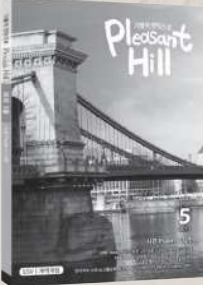
#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 투스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 나성금련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 리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준, 949-380-7777)
-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 로스힐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욱, 323-382-0691)
-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성, 818-785-3256)
- 빨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 베벌리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 새열매교회(남기정, 650-773-8589)
-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805-485-0100)
-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 히스패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 그라스도중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규, 954-739-8581)  
올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유혁재,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김선용, 772-353-0931)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버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현, 770-321-0020)  
존스크리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근, 678-431-7924)  
해밀턴말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익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성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교회(이병훈, 515-233-1063)  
과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디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자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파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용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우,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히블비전교회(장재용,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인다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새할말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이거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양태건, 732-613-4930)  
 그레이스벤델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홍,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영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이트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종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탠포드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스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람,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메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280-5768)

베들레헨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델피아대학교(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용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슈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브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루가연합감리교회(한장탁,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민나연합감리교회(오오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이진희,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주요한,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비트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선,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은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턴한인교회(김한석,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괘)**

괘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 성경진도표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야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다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허금숙, 조윤희
-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 (호산나미디어)

### 함께 하신 분들

-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유혁재 목사 (몽고메리주님의교회, AL)
- ❖ 주일 칼럼  
이영성 목사 (감람산인연합감리교회, HI)  
조기현 전도사 (벨리연합감리교회, CA)  
이요한 선교사 (카자흐스탄)  
강현중 목사 (토렌스산인연합감리교회, CA)  
김영래 목사 (콘트라코스타연합감리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